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480-000210-01

2019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맞춤형 구술영상 제작 연구”

결 과 보 고 서

2019. 12. 20



한국구술사 연구소
Korean Oral History Research Center

목 차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II. 연구 조사 내용	5
1. 전체 진행 보고	5
2. 구술채록 내용 보고	9
3. 구술영상 제작 보고	39
III. 연구의 성과와 한계	45
IV. 제언	50

<부록 1> 구술대상자 관리카드(2019.12.12)

<부록 2> 최종산출물 목록

<부록 3> 구술자 제공 참고자료 목록

<부록 4> 구술채록 및 구술영상 제작 프로세스

<부록 5> 주간보고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1990년대 중요한 사건인 IMF를 경험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야기를 구술 생애사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하여 현대사 사료화하고, 그 인터뷰를 영상 촬영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시용 구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국내의 박물관 전시 경향을 살펴보면 특히 민속학이나 근현대역사를 다루는 전시의 경우 구술사가 전시재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중의 생활과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 전시와 ‘가까운 과거’에 대한 서술이자 ‘역사 없는 사람들(the people without history)’의 증언이라는 특성을 갖는 구술사와의 만남은 매우 자연스럽다. 박물관은 이제 구술사를 전시에서의 주요한 재현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술사를 활용한 전시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여전히 미흡하고 박물관 현장에서도 전시를 위한 제대로 된 구술채록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시기획 전 단계에서 구술사 조사를 진행하여 전시 맞춤형 구술 영상 제작을 해야 한다. “IMF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구술 생애사”라는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술자를 전시발화자로서 주요하게 다루면 된다. 유물의 전시는 가능하면 구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구술자가 제공하는 자료라면 해당 유물이 갖는 컨텍스트도 함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술자가 IMF 시대의 증인으로 등장하면서 구술을 통하여 개인의 삶은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 제작을 위한 구술채록은 7-10명의 구술자의 구술 생애사 인터뷰를 하여 27시간 이상의 구술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남녀의 성비, 지역, 직업, 계층, 세대를 변수로 하여 구술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구술자는 남녀 비율을 최대한 동수로 하고, 직업도 제조업과 금융업, 회사원과 자영업자로 나누고, 세대는 IMF를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30대 후반에서부터 6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에서 구술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적 다양성 확보는 촬영 장소의 문제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조사의 목적에 맞게 구술채록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업군을 선정하였다.

- (1) 제조업 종사자: 1997년 쌍용그룹 부도, 1998년 대우그룹 쌍용자동차 인수 및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사건 경험자
- (2) 금융권 회사원: 1998년 6월 (1차) 금융권 구조조정과 대량 정리해고 사건 경험자

- (3) 여성노동자: 1998년 4월 ~ 8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및 식당 여성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 경험자
- (4) 자영업자: IMF로 퇴직하여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 사람
- (5) 창업자: 1998년 이후 ‘벤처 창업 붐’의 경험자
- (6) 청년 취업자: 1999년 현대전자 입사 취소자 11명 소송 사건 경험자
- (7) 당시 전업주부: IMF로 가장이 퇴직한 가족들의 주부
- (8) 당시 학생: IMF로 부도가 난 집안의 자녀들

또한 전시 서비스와 아카이브 서비스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구술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만들어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IMF에 대한 다음의 공통 질문을 사용하였다.

○ 구술 생애사 공통 질문

- (1) IMF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2) IMF 당시에 무슨 일(직장, 학교에서 등)을 하고 계셨나요?
- (3) IMF로 인해 본인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 (4) IMF로 인해 이웃이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 (5) 20년이 지난 현재 되돌아 볼 때 본인의 인생경로에서 IMF는 어떤 계기가 되었나요.
- (6) IMF를 기억할 수 있는 당신의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II. 연구 조사 내용

1. 전체 진행 보고

1) 자문회의 실시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오후2시-4시

장소 : 이마빌딩 전시운영과 소회의실

참석자: 연구기획과, 윤택림, 이재성, 조성실, 고혜미, 전은기

자문위원: 윤정향(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권(정책연구소 이음), 조은주(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 자문 내용

- (1) IMF가 새롭게 가져온 사회문화적 현상은 무엇인가?
- (2) IMF가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 (3) IMF가 현재 한국인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일까요?
- (4) 예상 구술자 집단 외에 추천하고 싶은 구술자들은 누구인가요?
+ 구술자를 섭외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 (5) 인터뷰 시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 예비 질문지에서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회의내용

(1) 자문위원 의견 청취

■ 윤정향

- 금융권 회사원과 여성노동자를 묶어서 금융권 여성노동자를 인터뷰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
- 자영업자도 IMF이전부터 자영업을 하던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 제안
- 학생도 평범한 10대 아이들이 겪었을 IMF를 체크해볼 것 제안

■ 김종권

- 자영업자는 섭외를 좀 다르게 해야 함. 지금까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성공한 자영업자임 원래 자영업을 하다가 망해서 노동을 하다가 재창업하거나 한 사람들을 찾아야 함.

- 질문에 가족의 변화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가족의 성 역할 구조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 IMF때임.

- IMF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 IMF는 극복까지 5년이 걸림. 5년 동안의 궤적을 보아야 함.

■ 조은주

- IMF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 세대, 계층, 성별로 굉장히 다른 경험이라는 것

- 지역에서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IMF를 경험했다. 지역주민들끼리 연대보증 때문에 한 지역이 초토화되는 경험이 꽤나 있었다. 특히 농촌으로 들어가면 친족, 지역전체가 연대보증으로 피해보는 경우가 있다. 또 서울로 갔던 젊은 20~30대 남성들이 지방으로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예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서는 없는 것들

- 파산한 아버지를 보는 학생이라던가 식으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구성원들이 경험한 IMF를 보는 것 제안.

(2) 질의응답 및 토론

- 안정적인 전시물의 획득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이미 인터뷰한 사람이나, 사회운동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고 짧은 전시용 영상을 위해 질문을 훨씬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박물관 측의 제안. 구술사라는 방법론을 어느 정도까지 관철시켜야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됨.

- IMF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의 이유이며, 그것을 통해 어떻게 현재의 삶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가가 이번 과제이기에 구술사가 가진 장점을 포기하기 어렵고, 또 구술경험이 있는 경험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서사를 뚫기 어렵기 때문에 구술경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을 구술자로 뽑는 것이 중요한 것.

2) 구술영상 촬영 시연 및 조율회의 진행

일시: 2019년 9월 19일 목 오후 2시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 2 강의실

참석자: 연구기획과, 윤택림, 이재성, 조성실, 고혜미, 전은기

■ 회의 내용

(1) 구술 채록에 대한 이해

- IMF 자체에 대한 역사 증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구술을 받는 것.

- 각 분야나 지역의 대표성에 따른 비율 안배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까지는 없는 일종의 시범사업.

(2) 구술자 섭외의 문제

- 계획했던 구술자 섭외 실패 시 다른 직종, 다른 경험자로 교체 가능
- 지역 신문 등과 같은 언론에 한번쯤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낸 사람도 가능
- IMF직격탄을 맞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괜찮음.
- 연구자가 직접 구술자를 찾는 것의 문제. 결국 연구자 개인의 네트워크만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정보공개센터, 서울문화재단이나 임실치즈농가협회 등에 박물관 측이 공문을 통해 구술자 섭외에 협조하기로 합의.

(3) 영상촬영에 관한 문제 및 구술영상 채록 시연 관련

- 구술자 1인당 외장하드 1개의 문제. 6테라 외장하드 우선시하기로 함. 고혜미 감독님이 박물관에 외장하드 추천하기로 함.
- UHD 특성상 25분마다 촬영을 끊어가야 함. 중간 쉬는 시간이 길어져 전체 소요 시간이 길어짐.
- 카메라 테스트, 화장 등의 가외 시간이 필요. 2시간 인터뷰는 짧은 느낌. 인터뷰 시간은 기본 3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해야 함.
- 인터뷰 대상자는 체크 무늬 옷, 검은색, 군청색등 어두운 옷 피할 것
- 음성파일 추출에 시간이 걸려 따로 구술채록을 위한 녹음이 필요함.
- 영상 촬영시 질문자 외 연구팀과 박물관 측에서 각각 인원 지원이 필요
- 원본, 클린본, 아카이브 본이라는 용어로 야기된 영상팀과 박물관 측 사이의 오해에 대한 조정

(4) 예비 질문지 공통 질문 최종확인 및 확정

- ① IMF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② IMF 당시에 무슨 일(직장, 학교에서 등)을 하고 계셨나요?
- ③ IMF로 인해 본인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 ④ IMF로 인해 이웃이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는 것들을 말씀해주십시오.
- ⑤ 20년이 지난 현재 되돌아 볼 때 본인의 인생경로에서 IMF는 어떤 계기가 되었나요.
- ⑥ IMF를 기억할 수 있는 당신의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5) <구술채록 관리지침> 점검

수정 사항들을 요청하여 수정본을 받음

3) 구술채록 및 구술영상 제작 진행표

연번	구술자	인터뷰 일정	구술 시간	녹취	구술자 감독	구술영상 제작
1	복기성	2019.09.22	3시간	완료	완료	편집영상별 녹취록 제출
2	홍순영	2019.09.29	3시간 10분	완료	완료	편집영상별 녹취록 제출
3	조용섭	2019.10.21	3시간 20분	완료	완료	편집영상별 녹취록 제출
4	박임자	2019.10.14. 2019.10.21	6시간 40분	완료	완료	편집영상별 녹취록 제출
5	오준섭	2019.10.13	3시간	완료	완료	편집영상별 녹취록 제출
6	이철상	2019.10.20	3시간 50분	완료	완료	편집영상별 녹취록 제출
7	방기홍	2019.11.25	3시간 15분	완료	완료	편집영상별 녹취록 제출
총	7명		26시간 15분			

위 표의 ‘구술 시간’의 경우, 오직 ‘영상물 촬영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구술 시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술 시간’은 녹취비 계산의 기준이기도 하고, 면담자(연구자) 수당의 기준이기도 하고, 구술자 사례비 지급의 기준이기도 하다. 또한 박물관 측과 계약한 최소 조건의 기준이기도 하다. 본 용역은 일반적인 구술 조사 상황을 기준으로 ‘구술 시간’을 책정하였다. 하지만 ‘영상제작 용역’에서 ‘구술 시간’은 일반적인 구술조사 과정과 달랐다.

- (1) 영상팀은 2시간 전부터 촬영 현장을 셋팅하기 시작해야 하며, 조사가 마친 후 역시 2시간 정도 현장을 정리해야 했다.
- (2) 면담자는 촬영 전에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예비 구술자가 본 촬영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실제로 ‘빅이슈 코리아’를 통해 섭외된 한 명이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촬영 일정이 취소되었다.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고 본 인터뷰가 취소된 경우라도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에 미리 책정되지 못했다. 구술자 섭외를 위해 도움을 받는 와중에 섭외비도 적지 않게 소요되었는데, 역시 예산에 책정되지

못했다.)

(3) 촬영 장기의 특성(저장 용량과 발열) 때문에 인터뷰는 25분마다 인터뷰가 중단 되었으며 60분마다 카메라의 발열 때문에 10분씩의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2시간이 지난 후에는 3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필요했다. 중간에 외부의 소음이 들리거나 할 경우 인터뷰는 중단되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3시간 인터뷰 분량을 촬영하는 데에 5~7시간의 촬영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면담자가 구술자와의 사전 만남이나 사전 조사를 제외하고 구술채록 및 영상 촬영 당일만을 계산하더라도 촬영팀 준비, 면담자와 구술자 촬영 준비, 인터뷰, 중간 휴식, 촬영팀 정리 시간을 포함하면 3시간 촬영을 기준으로 9~11시간이 소요되었다. 현재 구술 시간이 이 사업이 요구한 27시간 구술 시간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지만, 실제 소요 시간은 3배 정도로 80시간이었다.

따라서 영상제작 구술조사의 경우 ‘구술 시간’이 좀 더 실제 상황에 맞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첫 번째 구술자인 ‘복기성’의 경우 내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인터뷰가 진행되어 일종의 ‘시범적 인터뷰’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사실 이 점에서 ‘복기성’ 사례는 녹취문 작성, 검독, 영상물 편집 등의 전체 과정에서 계속 ‘시범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다른 연구용역에서도 미리 작업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터뷰, 첫 번째 사례 조사의 경우 처음부터 과정 끝까지를 우선 한번 다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전에 많은 항목들을 예상하고 대비한다고 해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이후 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구술채록 내용 보고

본 연구팀은 세 명의 연구자(윤택림, 조성실, 이재성)가 총 7명의 구술자의 생애사를 인터뷰하였다. 다음은 구술자 별 구술채록의 내용 분석이고, 구술자명 옆에 ()는 담당 면담자 성명이다.

1) 복기성(면담자: 이재성)

(1) 생애연보(이력)

1978년	충남 예산 출생
1995년	충주직업전문학교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 취득
1995 ~ 1998년	대동정공 입사, IMF로 부도나서 퇴직
1998 ~ 2001년	테크라프 이직, 병역특례를 마침
2001 ~ 2003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2003년 5~8월	차별철폐 100일 걷기, 전국 순례 활동
2003년 10월	쌍용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입사
2008년 10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2009년 5~8월	사내하청업체 폐업, 해고
2009 ~ 2016년 2월	해고 철회 투쟁 후 승소, 복직

(2) 구술자의 특징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쌍용자동차 해외매각과 해외자본의 부실경영 및 기술유출 문제 등이 장기적으로는 IMF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술자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의 부도에서부터 대기업의 해고까지, IMF 위기의 영향 속에서 20여 년을 살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기성은 병역특례로 다니던 중소기업이 IMF로 부도 처리되면서 해고되었다. 이후 쌍용자동차 하청기업 노동자로 입사하였으나, 쌍용자동차 역시 IMF 당시 기업이 대우에 넘어가고, 대우도 부도가 나면서 해외자본(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되고 말았다. 결국 경영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2009년 2,646명의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를 당하였다. 노동자들의 긴 투쟁이 전개되었고, 노동자들과 가족 등 30여 명이 병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복기성은 복직 투쟁에 앞장섰으며 2016년 이후 해고 노동자들은 순차적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다.

(3) 구술채록의 내용 분석

구술자는 다소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장기간 노조 활동가로 일해 왔지만 대중 앞에서 발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인터뷰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촬영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인터뷰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본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지는 강했고 촬영도 잘 진행이 되었다.

구술자는 촬영에 대한 부담과 인터뷰를 망치면 안 된다는 부담 때문에 예비 질문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였다. 본인 관련한 자료도 미리 보내주었고, 답변 내용도 미리 글로 적어오기도 했다. 구술 내용 중에는 그런 ‘준비된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온다. 인터뷰 중간에 ‘질문을 하나씩 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하는데, 이는 준비된 답변을 최대한 깔끔하게 진술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구술자는 본인 생애사와 IMF 사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3년 입사하여 이후 10년간의 복직투쟁을 벌이고 현재 복직되어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생애사의 중심에 있다. 이에 비해 1997-98년의 IMF 사태와 ‘병역특례’ 기업의 부도, 그리고 ‘병역특례’를 이어가기 위한 재취업의 기억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본인의 생애사가 사회경제적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정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새로운 자기 해석의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구술자는 친형이 연극을 하고 있었고,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형의 소개로 음악을 취미로 갖기로 하였다. 지역의 문화단체를 통해 풍물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는 구술자를 사회운동과 연결하는 매개가 되었다. 구술자는 풍물에 재능이 있었고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게 되어,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으로 정규직 노조의 풍물패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운동 특히 노동운동에서 ‘풍물’은 매우 중요한 재능이다. 1980년대 이래로 풍물은 노동운동 내에 활동가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활동가 재생산 기관이 되어 왔다. 구술자에게 풍물은 소극적 성격을 극복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게 해 준 매개체가 되었다. 하지만 본 조사가 1차에 그치는 바람에 풍물이나 문화에 대한 구술자의 풍부한 진술을 많이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이 구술은 IMF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인 ‘비정규직’ 문제를 잘 드러내는 내용이다. 구술자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시작하여 기아자동차 하청노동자를 거쳐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일하였고,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는 주체가 되기도 했다. IMF 이후 오랜 시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사회 모순에 맞서서 저항해 온 사람이다. 이런 내용 역시 1차 조사의 한계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 증언을 채록하지 못했으나, 전체 생애사의 과정은 잘 드러나고 있다.

이 구술은 IMF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지만 결국 IMF의 장기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쌍용자동차 해외 매각과 집단 해고의 문제를 노동자들의 체험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장기 복직 투쟁과 법정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구술자는 2008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오랜 투쟁 과정을

진술할 때에 여러 사건들과 그 연도, 날짜, 숫자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개인에게 깊이 각인된 사건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술자는 검독 과정도 매우 꼼꼼하게 진행했으며, 개인기록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국가 기관에 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꺼려진다’ 고도 말했다. 이는 국가 공권력과 사법기관, 그리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쟁 과정에서 생긴 상처 때문이다.

‘너무 억울하다’ 는 것,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희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는 것이 구술자의 가장 큰 바람이자 이 증언을 하는 가장 큰 동기였다고 생각된다. 복직을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인지’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 다고 말하는 구술자에게, 현재 쌍용자동차는 또 경영 위기를 이야기하는 중이다. 할머니를 모시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었던 젊은 노동자는 20년 전에도 20평 아파트에 살았고, 지금도 20평 아파트에 70% 이상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살고 있다. 그는 이것이 불평등한 체제라고 보고 있고 이 구조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4) 구술영상 제작 용 영상 선택

	복기성					
연 번	문항 번호	영상 시간	파일명	타임코드	녹취문 시작 지점	녹취문 끝나는 지점
1	1	1분 분량	복기성-2	12:50 ~ 14:30	(12쪽) 그러면 그때 이제 IMF를 뒀,	(13쪽) 영향은 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5분 분량	5분 분량까지로는 내용이 없어서 선택 불가			
2	2	1분 분량	복기성-1	10:25 ~ 12:40	(5쪽) 그러시죠. 네. 그리고 입사하신 내용부터	(5쪽) 상여금, 퇴직금이 다 몇천만원씩 됐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3		5분 분량	복기성-1	06:56 ~ 13:45	(4쪽) 아.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인문계였는데요,	(6쪽) 참 경제적으로 아 진짜 만족할 만한 회사였습니다.
4	3	1분 분량	복기성-2	06:28 ~ 08:42	(11쪽) IMF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도	(11쪽) 우리도 고통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있었던 거죠.
5		5분 분량	복기성-2	02:51 ~ 08:42	(10쪽) 그래서 그 대동정공에 복지가 좀 좋은 편이었다	(11쪽) 우리도 고통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있었던 거죠.
	4	1분 분량	적절한 해당 내용이 없어서 선택 불가			
		5분 분량				
6	5	1분 분량	복기성-2	11: 35 ~ 12:50	(12쪽)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회사 문 닫고	(12쪽) 걱정이 더 크셨던. [구술자 : 예.]
7		5분 분량	복기성-2	08:43 ~ 12:50	(11쪽) 그러면 그 관리, 임원진들 측에서도 부도를 피할 수 있다	(12쪽) 걱정이 더 크셨던. [구술자 : 예.]
8	6	1분 분량	복기성-5	11:40 ~ 13:11	(39쪽) IMF 사태로 인해서 선생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39쪽)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9		5분 분량	복기성-5	11:40 ~ 18:33	(39쪽) IMF 사태로 인해서 선생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40쪽) 좀 나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	문 항 추 가	1분 분량	복기성-3	06:10 ~ 08:40	(21쪽) 그런데 거기서 2003년에 입사하셨는데,	(22쪽)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1		5분 분량	복기성-3	1) 06:10 ~ 08:40	(21쪽) 그런데 거기서 2003년에 입사하셨는데,	(22쪽)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2) 10:30 ~ 16:51	(23쪽) 그러면, 쌍용자동차가 이제 대우에서 상하이자동차로 매각이 됐는데요.	(24쪽) 노동조합 설립하고 이제 지내게 된 거죠.
12	문 항 추 가	5분 분량	복기성-5	21:46 ~ 25:47	(42쪽) 제가 궁금한 걸 말씀드리면서, IMF 하면 가장 먼저	(42쪽) 저는 나서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5) 구술자 제공 참고 자료

가. 직접 작성한 자료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함)

북기성은 본인의 상세 약력을 직접 작성하여 보내주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복직 투쟁 과정에서 제작된 동영상과 기사 등 링크를 9개 알려주었다. 그리고 예비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서로 답안을 작성해 주었다. 이 자료들은 하나의 문서로 있는 그대로 넣어서 저장하였다. (면담자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나. SNS를 통해 알려준 관련 자료 목록

북기성, “해고=죽음의 행렬을 막아라”, [리얼리스트100] 4호, 삶이보이는창, 2012.
정혜윤, [그의 슬픔과 기쁨], 후마니타스, 2014.

다. 기증한 자료

[당신과 나의 전쟁: 당신의 체념 속에 스며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야기] (연출 태준식, 구성/대본 안지은, 조연출 손경화, 2010년) 다큐멘터리 DVD

(6) 문제점

이 조사 사업에서 첫 번째로 하는 인터뷰였기에 촬영 시간이 5시간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술자도 양해를 해 주었고 촬영팀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다.

2) 홍순영(면담자: 조성실)

(1) 생애연보(이력)

1979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출생
1986년	상계동으로 이사. 초등학교 입학, 3학년 때 서울올림픽 개최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 부모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11월 수능시험을 본 다음 날 서울 상계동에서 의정부로 이사
1998년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입학
1998년 9월	학자금 마련을 위해 휴학, 아르바이트 생활 시작
2003년 8월	대학 졸업
2003년 11월	경기도 소재 음향회사 ○○○ 입사, 인사과에서 근무
2006년(28세)	직장을 그만 두고 캐나다로 출국함
2008년(30세)	귀국 후 친오빠가 있는 아산의 공부방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
2012년(34세)	결혼하면서 서울로 이주, 부모님이 요양원을 운영하게 되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취득하여 함께 일함
2017년(39세)	친정 부모가 사는 의정부로 이사 현재까지 부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

(2) 구술자의 특징

구술자 홍순영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 부모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의 생애사는 IMF 시기를 겪은 자녀세대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태어나 비교적 풍요로운 가정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부모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보다 전문적으로 경영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경영학과에 지원했으나 IMF로 인해 부모님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자 대학 전공 수업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학자금 마련이 어려워 휴학과 여러 아르바이트 생활을 경험하고 복학 후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등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회고한다.

홍순영은 본인이 겪은 일 외에도 당시 대학 생활에서 마주했던 선후배, 동기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학자금 대출을 안내하던 포스터가 늘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거나 학과 사무실에 대출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 소위 ‘취직 잘되는 학과’ 이던 경영학과 동기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되는 상황, 취업난 때문에 졸업을 미루던 선배들의 모습 등 당시 대학생들의 상황을 구술하였다.

(3) 구술채록의 내용 분석

① IMF 외환위기 이전의 삶 (유년 시절 ~ 고등학생 시절)

구술자 홍순영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97년 IMF를 맞았다. 인터뷰 초반에 이루어진 질문은 ‘IMF 이전 시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서울

이문동에서 태어난 그는 수제화를 제작하던 아버지와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청소년기를 보냈다. 경제활동으로 늘 바쁜 어머니 대신 아버지와 친오빠가 주로 그를 양육했다고 기억하며 특히 식당 사업이 잘 되어 호황을 이루자 고가의 사교육을 받는 등 남부럽지 않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구술하였다. 유년기~청소년기의 유복했던 생활에 대한 기억은 IMF 시기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의 삶과 비교 대상으로서 등장한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늘 바빠던 어머니가 사업실패 후 집안에만 머물며 많은 시간을 홍순영과 보내게 된 것이 오히려 좋은 기억이었다고 말한다.

② IMF를 알게 된 계기

IMF 시기 고3 수험생이던 그는 사실 뉴스에서 관련 내용이 나와도 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 수능시험 다음 날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IMF 위기상황이 닥친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③ IMF로 인해 가족과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그는 대학 졸업 후 부모와 함께 레스토랑을 경영하고자 계획하고 일부러 경영학과에 대입 원서를 냈으나 사업이 어렵게 되자 대학생활에 적응 못하고 결탈게 되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학자금 마련도 어렵게 되자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했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중국에 가서 한동안 일하기도 했다. IMF로 인한 가족의 이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④ IMF시기 주변의 상황

IMF 시기 이후 대학 내에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광고 포스터나 전단지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배들이 졸업을 늦추고 취업 준비에 힘들어하던 기억을 비롯해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의 대학가 풍경을 구술하였다. 그 무렵 공무원시험 열풍이 불었고 졸업 후 직장인이 되어서도 학자금을 상환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 그의 주변상황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청년취업난, 청년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를 가늠해볼 수 있다.

⑤ IMF가 갖는 개인적 의미

IMF시기가 계속 이어지던 2000년대 초반 중소기업에 입사했으나 인사과에 근무하며 구조조정 당하는 직장 선배들의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사회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기준도 애매한 성과지표로 직원들을 퇴사시키는 회사에 계속 있고 싶지 않아 3년 동안 모은 월급으로 캐나다 어학연수를 떠난다. 한국 사회를 벗어나 영어공부에만 매진했던 그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의 외국행은 IMF라는 최악의 상황, 즉 IMF 위기에 처한 한국을 벗어나고자 했던 몸부림과도 같았다. 가족으로부터, 회사로부터, 한국 사회로부터 벗어나 낯선 곳에서 살았던 2년 동안의 생활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잊지 못했던 시기였다고 한다. 어학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 강사라는 새로운 직업도 갖게 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 아이들을 낳았다.

(4) 구술영상 제작용 영상 선택

홍순영				
문항 번호	영상 시간	파일명	타임코드	녹취문
1 IMF 어떻게 알게 되었나	1분 분량	홍순영1	00:45:32-00:45:55	(15쪽) 갑자기 엄마가 IMF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생략)...너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옛날처럼 못 산다 엄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0:42:32-00:42:55	(14쪽)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뉴스에 관심이 없는데 그때 갑자기 금을 집에 있는 금을 팔았다 ... (생략)...근데 97년도까지 그렇게 살다가 엄마아빠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00:42:56-00:43:17	(14쪽) 고3 때. 그래 가지고 잇을 수가 없는데 ... (생략)... 왜냐하면 수능일 전에 이사를 잡으면 안 되니까.
	5분 분량	홍순영1	00:42:32-00:42:55	(14쪽)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뉴스에 관심이 없는데 그때 갑자기 금을 집에 있는 금을 팔았다 ... (생략)...근데 97년도까지 그렇게 살다가 엄마아빠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00:42:56-00:44:51	(14~15쪽) 고3 때. 그래 가지고 잇을 수가 없는데 고3 11월에 제가 수능을 봤던 것 같아요. ... (생략)... 그래 나는 어떤 점수가 나와도 오빠처럼 재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재수도 그때 돈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그때는 엄마가 됐을 때 (삭제요망)(00:44:04), 엄마가 갑자기 집이 힘들어졌으니까 그래도 공기 좋은 데로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하고 이사를 간 거였어요. ... (생략)...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잘 지내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내가 컸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00:45:12-00:45:55	(15쪽) 그때 대학 수능 끝나고 대학 때 친구들이랑 알고는 있었는데 뭐 그게 큰 영향이 있을까 했는데 ... (생략)... 너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옛날처럼 못 산다 엄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0:48:10-00:48:51	(16쪽) 그냥 엄마가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이사 갈 거더라고 하고는. ... (생략)... 그래 가지고 그때 조금 엄마가 왜 얘기한 거당 너무 틀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죠.
2 당시 무슨 일을?	1분 분량	홍순영2	00:00:54-00:01:57	(16~17쪽)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장사가 잘되니까 우리가 돈을 오빠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고3이었으니까 오빠 이미 대학생이 됐겠죠. ... (생략)...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니까 집을 처분을 하시고 이렇게 의정부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00:00:54-00:01:57	(17쪽) 그때는 고등학교 삼학년이었어요. 그 때는 한창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IMF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계속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 (생략)... 우리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좀 좀 변하고 안 좋아졌구나 이 정도였지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체감을 못 했었어요.
	5분 분량	홍순영2	00:01:58-00:06:04	위의 녹취록 부분과 동일 (17~18쪽) 그리고 나서 이제 98년도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집에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맨날 밤에 계시고 돈 버느라 바쁘시던 분이 집에 계시는 거예요. ... (생략)... 일 년 두 번, 두 학기는 대출을 받고 나중에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엄마랑 갚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때 한 학기 하고 또 이제 휴학을 또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대출도 받고 휴학도 하면서 이

				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3 본인 (가족) 삶의 변화	1분 분량	홍순영2	00:27:06-00:28:57	(23쪽) 우선 엄마아빠는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셔야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집도 상계동에서 의정부로 이사 오게 됐고 그게 가장 컸구요. ... (생략)... 많이 봉사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00:16:39-00:17:04	(21쪽) 제가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 (생략)... 그런데 졸지에 다 파시니까 경영학도가 의미가 없는 거죠.
	5분 분량	홍순영2	00:11:58-00:14:50	(20쪽) 그냥 그 얘기는 하셨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잘 살라고 이제 엄마도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은행 이자가 갑자기 너무 많아졌다. ... (생략)... 그래서 그나마 그 아파트라도 하나 건졌다. 의정부에서 사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그래도 다 지나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0:27:06-00:28:57	(23쪽) 상동
			00:16:39-00:17:04	(21쪽) 상동
			00:33:54-00:34:36	(25쪽) 입학할 때 제가 경영학과를 한 게 엄마아빠가 음식점을 하시니까 경영학과를 선택한 거였는데 그런 모티브가 없어진 거죠. ... (생략)...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경영이나 회계를 배워가지고 잘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좀 학과공부에 적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4 주변에 일어난 일	1분 분량	홍순영3	00:00:32-00:01:44	(31쪽) 지금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때는 저 같은 경우는 휴학을 되게 안한 편이에요. 휴학 기간이 짧은 편이에요... (생략)... 그래서 항상 도서관에 공부하는 사람들,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 뭐 세무사시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은 취업난 하고 상관없이 내가 붙으면 되니까.
			00:05:12-00:05:50	(32쪽) 엄마아빠 친척 분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사업 같은 것을 그 근처에서 그런 분들은 뭐 거의 포기하고 사업을 접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생략)... 더 엄마보다 더 잘 살았는데 더 사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더 남는 게 없었던 영향이 커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있었대요.
			00:11:15-00:12:11	(34쪽) 제가 회사에도 회의를 느꼈던 게 저희 회사도 그때 IMF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 가지고 회사도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어요. ... (생략)...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의 평생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회사가 힘들다고 바로 그런 회사에 그런 시스템 그런걸 보면서 되게 회의가 더 느껴지기도 했어요.
	5분 분량	홍순영3	00:00:32-00:01:44	(31쪽) 상동
			00:06:33-00:08:22	(33쪽)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은 시골인데 시골에서 살았고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출신이었어요. 지방 출신이었는데 한번은 전남 화순인가 그런 지방에서 올라온 선배들이었는데 ... (생략)...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회계사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항상 친구들이 이제 그때는 술자리 대학생들 술자리를 가지면 너무 부모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큰 거예요.
			00:11:15-00:12:11	(34쪽) 상동
			00:12:12-00:12:55	(34쪽) 그래서 그 구조조정 작업... 저는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나중에 그분들이 소송을 안 하게끔 맞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나는 그냥 이 돈을 위로금 받고 아무 말 안하겠고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 (생략)... 그러니까 그거에 불만이 왜 이일이 더 중요하냐, 더 안 필요한 게 없는데 그런 걸 하면서 저도 회의가 많이 느껴졌던 거죠.
			00:13:05-00:15:54	(35쪽) 기억에 남는 분은 되게 또 채용 파트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 팀장님들이랑 되게 친했어요. 다 친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생략)... 근데 들어보면 애들이 아직도 어리시고 출가시키지도 않으시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때 회사생활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5 IMF는 어떤 의미	1분 분량	홍순영4	00:11:59-00:13:39	(51쪽) 그때 계기로 좀 엄마아빠를 바라보는 그게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아빠가 항상 나한테 뭔가를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이후로는 만약에 제가 엄마아빠가 겪던 그런 거를 실패를 하지 않으셨다면 철부지 없이 살았을 텐데 그때 돌아보면 그때 이후로 저 내가 뭔가 내가 해야 된다. ... (생략)... 그때는 엄마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냥 엄마아빠가 나를 항상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뭔가 이 상황에서 내 일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5분 분량	홍순영4	00:11:59-00:13:39	부분들이 자각이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51쪽) 상동
			00:13:40-00:15:21	(51~52쪽) 그때는 엄마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냥 엄마아빠가 나를 항상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뭔가 이 상황에서 내 일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각이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 (생략)... 어찌됐건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진 않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죠. 만약에 IMF 시대가 없었더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 제가 그래요. ‘엄마 그때 왜 건물을 지었냐? 그 돈을 가지고 금을 샀으면 어떠한 돈을 뭐 안정적인 걸 샀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 (생략)...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이어오고 있다는 게 아직도 저는 요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00:16:44-00:19:22	(52~53쪽) 지금 쪽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되게 내 자신이 되게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 (생략)...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고민이 되는데 좀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후회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6	1분 분량		해당 내용 없음	
물건	5분 분량		해당 내용 없음	

(5) 구술자 제공 참고 자료 : 없음

(6) 문제점

홍순영의 구술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 다만 영상 촬영이라는 상황이 가져다 주는 부담감으로 인해 IMF 시기 그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보다 풍부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3) 조용섭(면담자: 조성실)

(1) 생애연보(이력)

1956년	부산 출생
1974년 10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부산은행 입행
1975년	부산진고등학교 졸업 같은 해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야간부 입학
1978년	입대(서울 용산)
1980년	제대 후 복직 및 복학
1982년	부산은행 동료이던 아내와 결혼, 같은 해 득남
1983년	대학 졸업
1996년	부산은행 자회사 부산할부금융 부산지점장
2009년 2월	퇴사 후 지리산권 남원으로 귀촌
2017년	‘협동조합 지리산권 마실’ 대표

(2) 구술자의 특징

구술자 조용섭은 본 구술채록사업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구술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컸다. 특히 평소 지리산권 역사에 대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떨림 등이 없는 편이었다.

현재는 귀촌하여 남원에 살고 있으나 고향인 부산에서 금융권에 근무하였던만큼 IMF시기 금융권 상황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었고 본인이 경험한 사건 외에도 주변 금융인들의 삶이 IMF로 인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구술하였다.

(3) 구술채록의 내용 분석

① IMF 외환위기 이전의 삶 (유년 시절 ~ 부산할부금융사 근무 시절)

구술자 조용섭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6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장남으로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였다. 중학교 시절에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하였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진학 시 상업과에 들어가 은행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였으며 취직 후 어머니와 동생들, 부인과 자녀들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직장생활을 이어갔다. 특히 그의 부인은 같은 은행에 다니던 직장동료였는데,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능력 있는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가정주부로 생활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전 조용섭의 삶은 1950년대에 태어난 남성들의 전형적인 모습 즉 부친을 대신하여 장남으로서의 역할, 아내와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 직장생활을 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며 IMF시기 이전 일반적이던 가부장제 가족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② IMF를 알게 된 계기

한창 직장 생활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40대의 나이에 IMF를 맞이하게 되었다. IMF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경제위기를 직감하였다고 한다. 특히 금융권에 종사하다보니 부실대출, 거래처의 부도 등 실제 사례를 가까이서 접했다.

③ IMF로 인해 가족과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조용섭은 IMF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는 않았으나 대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다. 또한 그와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이 퇴사하거나 친구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 그는 퇴사를 결심하고 지리산권 남원에 귀촌하게 되었다.

④ IMF시기 주변의 상황

친인척들이 사업 부도로 인해 힘들어했고, 직장동료들 역시 IMF 위기상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구술하였다.

⑤ IMF가 갖는 개인적 의미

그에게 IMF라는 사건은 삶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였다. 평소 산을 좋아하던 그는 IMF를 계기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지리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자신이 좋아하던 일,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계기로서 작용했다.

(4) 구술영상 제작 용 영상 선택

조용섭				
문항 번호	영상 시간	파일명	타임코드	녹취전문
1 IMF 어떻게 알게 되었나	1분 분량	조용섭6	00:07:36~00:08:28	(41쪽)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뉴스를 보고 알았겠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 때 제 기억나는 거로는 김선홍 회장이 있던 기사자동차가 이 테모 때 노사분규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 (생략)... IMF는 뭐 저희들이 수시로 좀 안 좋다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있었죠 근데 IMF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될 줄은 몰랐죠
			00:09:56~00:10:51	(42쪽) 제가 직장을 옮기고 부산할부금융으로 옮기고 난 뒤 부터는 옛날에 정을 못 잊어 연락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 (생략)... 견딜 재간이 없는 거죠. 환란의 경우는 정상적인 영업보다는 그런 환을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5분 분량	조용섭6	00:07:36~00:08:28	(41쪽) 상동
			00:09:56~00:10:51	(42쪽) 상동
			※ 5분 분량 없음	
2 당시 무슨 일을?	1분 분량	조용섭6	00:11:05~00:11:28	(42쪽) 그 때는 이제 부산할부금융이 이름을 바꾸고 롯데할부금융으로 이름을 바꾸고 부산 지점장. ... (생략)... 계속 영업활동을 나름대로 활발히 하고 있을 때였죠
		조용섭5	00:25:28~00:26:17	(38-39쪽) 할부금융사라는. 2금융. 예금이 없는 금융. 대출만 하는 금융이죠. 그 당시에는 할부금융사라고 그랬어요 ... (생략)... 이제 부산이라는 이름의 상징적인 부산 지점은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4월 달에 인제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5분 분량	조용섭5	00:25:28~00:26:17	(38-39쪽) 상동
		조용섭6	00:00:30~00:02:13	(39쪽) 이 부산할부금융은 그니까 할부금융사들은 지금은 다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었어요 ... (생략)...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산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 기도 했어요
			00:02:57~00:03:43	(40쪽) 특히 저희들의 노래방 기기를 해 가지고 꽤 성과를 많이 거뒀죠 ... (생략)... 익산에 있던 하나 병원이라고(삭제요청 00:03:32) 신설된 큰 병원이 있었는데, MRI 기계 같은 건 꽤 비싸지 않습니까? 고가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할부 금융으로 해 가지고 또 대출을 하고는 했는데.
			00:04:14~00:05:05	(40쪽) 부산 지점은 서울 수도권 말고는 저희 다 영업 구역이었어요 ... (생략)... 하나 병원은 그런 케이스고(삭제요청 00:04:48) 그야말로 할부 금융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업체 다 그 만드는 제조 업체하고 대리점하고 서로 다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새로운 신상품이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좀 다녔었죠
			00:06:19~00:06:56	(41쪽) 할부금융사의 업무는 은행하고는 조금... 약간 틈새시장을 노리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융업도 나름대로 잘 해쳐나가면은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은 많이 됐죠. 특히 팩토링은 수십억씩 하는 대출이 내 손에서 결정이, 물론 본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지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3 본인 (가족) 삶의 변화	1분 분량	조용섭7	00:00:19~00:00:39	(47쪽) 경제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에 그런 뭐 전체적인 삶의 변동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가끔씩 나가던 이제 골프를 아예 치지 않고
			00:02:34~00:03:31	(47쪽) 그때 이제 지리산을 갔는데, 아마 한두 달 뒤에 갔을 거예요. 갔는데, 천왕봉을 혼자 올라갔거든요. ... (생략)... 좀 비정상적으로 산을 좀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43-44쪽) 카드 자금을 상환자금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갚아나가기 위한 업체들이 결국 IMF 와가지고 속수무책의 상태가 되다 보니까 ... (생략)... 저희들도 지금 한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량 건설업체가 갖는 아파트, 금리 마진은 좀 적더라도 그런 업체 위주로 안정적으로 그거를 했고
	5분 분량	조용섭6	00:15:38~00:17:34	
		조용섭6	00:24:24~00:25:06	(46쪽) 그게 뭐 금융 쪽으로는 아니고요 사실 굉장한 변화는 있었죠 ... (생략)... 골프도 치고, 조금 치러 다니고 그랬는데, 골프채를 창고에 집어 넣어버리고 드디어 지리산 쪽으로...
		조용섭6	00:25:17~00:25:51	(46쪽) 사실 저는 입학 한 그 다음 대학 1학년 겨울 방학 때 지리산하고 인연을 맺었거든요. ... (생략)... 근데 아까 그 생활의 변화에 생각이 좀 바뀌게 됐고
		조용섭7	00:00:19~00:00:39	(47쪽) 상동
			00:02:34~00:03:31	(47쪽) 상동
			00:03:40~00:04:18	(48쪽) 지리산을 단순한 등산의 대상이 아니고 뭔가 그 자연에 기대가지고, 내가 좀 아주 힘든 일을 좀 잊기도 하지만 또 위로 받는, ... (생략)... 그리고 그렇게 산을 다니다 보니까 매주 산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4 주변에 일어난 일	1분 분량	조용섭7	00:10:50~00:11:42	(50쪽) 지금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이제 제일은행 다니던 친구는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 (생략)... IMF는 환란이지 않습니까? 외화로 수입한 기계가 갚을 금액이 두 배 세배로 뛰는 바람에 결국 문을 닫고
			00:12:18~00:12:41	(50쪽) 특히 저는 금융 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느끼지만, 그 외화 대출, 뭐 또 수입할 때 유산스라고 있어요. 유... (생략)... 거의 다 회사가 망하게 되는데...
	5분 분량	조용섭6	00:18:30~00:20:13	(44-45쪽) 그 때 인제, 그 전에 신철 은행들이 막 생깁니다. 지역적으로는 부산에 동남은행, 대구에 대동은행, 전국은행으로는 평화은행 생겼는데... (생략)... 아까 그렇게 은행 자체가 문을 닫을 경우에 나가는 사람들은 고생이 엄청 많이 했죠 가까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조용섭7	00:10:50~00:11:42	(50쪽) 상동
			00:12:18~00:12:41	(50쪽) 상동
			00:15:08~00:16:02	(51쪽) 꽤 좀 시간이 지난 뒤지만... IMF시기는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 (생략)... 그 시험에는 시험에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니까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00:17:24~00:18:17	(51-52쪽) 이제 조흥은행 출신들은 신한은행에 흡수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조직이 신한은행으로 바뀌게 되죠. ... (생략)... 신철은행에 다 들어가 버렸죠. 근데 그나마 국민은행은 그 당시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또 합병이 되었고
		조용섭8	00:03:52~00:04:31	(55쪽) IMF 끝나고부터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내수, 내수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펼 때부터 이런 카드대란은 일어날 조짐을 이미 안고 있었다 보면 되겠지요. ... (생략)... 빚을 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5 IMF는 어떤 의미	1분 분량	조용섭8	00:06:38~00:06:50	(56쪽) 그때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용카드 대란이 딱 끝나고 저희들도 견뎌내기는 했지만 조금 힘든 상태였는데 일본사람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00:07:21~00:08:02	(57쪽) 그런데 뭐 어쨌든 ‘근무를 오래하기는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부장생활을 기업금융부장, ... (생략)... 지리산에서의 생활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

	5분 분량	조용섭8		게 사표를 내게 되었죠.
			00:14:16-00:15:07	(58-59쪽) 아마 그... 이것도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우리 사회에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사건이 분명하지만 IMF를 기점으로 ... (생략)...그런 금융기관에서의 출세보다는 나답게 사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됐지 않겠나.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00:06:38-00:06:50	(56쪽) 상동
			00:07:21-00:08:02	(57쪽) 상동
			00:14:16-00:16:00	(58-59쪽) 아마 그... 이것도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우리 사회에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사건이 분명하지만 IMF를 기점으로 저와... (생략)...문화교양학과 출신으로 해가지고 대학원 등록을 했었어요.
			00:17:37-00:17:58	(59쪽) 어쨌든 지리산을 생활수단으로,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갔는데 결국은 회사를 그만둬야 될 그런 계기가 왔을 때, 아무 그런 주저함 없이 지리산을 택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아내한테도 양해를 바란다고 제 뜻, 제 의지대로 그렇게 넘어오게 됐죠.
			00:18:44-00:21:12	(60쪽) 2009년도 12월에 남원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조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쿵을 발효시키는 음식들이 장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 (생략)...대부분의 매출은 한의원에 좀 납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꽤 성공적으로 귀농 귀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죠.
6	1분 분량 5분 분량	해당 답변 없음		

(5) 구술자 제공 참고 자료 : 없음

(6) 문제점

본 구술자는 IMF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해 언급한 부분들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 검독 과정에서 그가 삭제를 요구한 부분 중 IMF와 관련한 중요 주제가 꽤 있었지만(예를 들어 금융권의 위기상황, 카드대란에 대한 사회적 상황 등) 구술자의 뜻을 이해하고 의견을 존중하기에 연구자가 별도의 개입은 하지 않았다.

4) 박임자(면담자: 조성실)

(1) 생애연보(이력)

1948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
1968년	부산테레사여상 졸업
1981년	성동지구당 이세기 국회의원 사무실 근무
1989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록회관’ 혼수매장 입점 전통한복 ‘윤정 우리옷’ 경영
1998년	IMF로 인해 가내공업이 어려워짐
2005년	잠실 향균회관에서 한복집 경영
2019년	현재 피부 마사지사로 근무

(2) 구술자의 특징

구술자는 IMF당시 정수기 필터 제작 가내공업, 한복혼수매장 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남편, 사위 등 온 가족이 참여하였다. IMF 위기 상황에서 부도를 맞게 되자 가족경영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가족의 해체와 이산을 맞는다. 딸 부부가 이혼하고 자신도 남편과의 불화가 잦아지고, 막내딸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등 IMF로 인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겪었다. 구술 인터뷰 내내 계속 눈물을 보여 촬영이 순조롭지 못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는 구술 의지가 매우 강한 편이었고, 자신의 삶과 이야기가 공개되어 많은 이들이, 특히 현재를 사는 젊은이들이 IMF 위기 같은 불운한 역사를 또다시 맞이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구술자 중에서 가장 고령이고 사연이 많아서 유일하게 두 차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구술채록의 내용 분석

① IMF 외환위기 이전의 삶 (유년 시절 ~ 정수기 필터 가내공업 운영 시절)

1948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박임자는 계모 슬하에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다 중학교 졸업 후 친모가 있는 부산으로 이주했다. 부산에서의 삶 역시 계부와 의 갈등으로 인해 행복하지는 않았고 17세의 나이에 독립하여 야간 상업고등학교에 다녔다. 당시 부산에 있던 금성(LG전신) 계전기실에서 일하다 남편을 만나 결혼 후 서울로 이주, 딸 셋을 낳고 가내공업을 하며 재산을 축적해갔다. 성동구 개발 전 집을 사들여 부를 쌓았고 정수기 필터 제조업, 한복가게 등 가족경영을 하면서 풍족한 생활을 하다가 IMF를 맞이하였다. 연쇄도산으로 인해 가족의 사업에도 영향을 주어 빚더미를 안게 되었고 그의 가족은 해체되기에 이른다.

② IMF를 알게 된 계기

IMF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으나 주변 가내 공업자들이 연쇄 부도로 인해 망하게 되면서 IMF 위기를 체감하였다고 한다.

③ IMF로 인해 가족과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IMF로 인해 온 식구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성동구에서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딸 부부는 이혼, 막내딸은 월급 차압을 견디다 못해 캐나다 이민, 본인도 최근 이혼하였다. IMF 위기가 가져다준 가족해체와 이산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④ IMF시기 주변의 상황

IMF 시기 요양보호사 일을 하려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으나 주변의 많은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했다고 구술하였다. 또한 파출부, 식당 일 등 직장을 잃은 남편을 대신하여 생업에 뛰어든 주변의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당시 남편의 실직과 부도로 인해 가정주부들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⑤ IMF가 갖는 개인적 의미

박임자는 가족의 해체에 대해서 많은 한을 품고 있다. 특히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딸의 가족이 해체되고 막내가 한국을 떠나는 등 안 좋은 상황을 겪으면서 가족경영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IMF 이전 삶과 비교해보면 현재는 심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도 챙기며 살고 있다는 등 긍정적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4) 구술영상 제작용 영상 선택

박임자				
문항 번호	영상 시간	파일명	타임코드	녹취전문
1 IMF 어떻게 알게 되었나	1분 분량	박임자6	00:00:13-00:01:57	(31쪽) 제가 IMF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요. 어느 날 텔레비를 틀었는데 계속 방송마다 IMF, IMF 나와서 ... (생략)... 그 당시 소기업은, 뭐 큰 회사는 어떤지 몰라도 조그마한 가내 공업은 다 몰살이 되더라고요.
	5분 분량	박임자6	00:00:13-00:01:57	(31쪽) 위의 녹취록 내용과 같음
			00:01:58-00:05:00	(31~32쪽) 그래도 저는 못 느꼈어요. 우리는 탄탄하니까. 못 느끼고 몇 달 있었는데 아마 남편은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속으로 풀 았나 봅니다. ... (생략)... 한 스무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여기 대장이 누구냐고 하나씩 아주머니 집니다. 저도 모르게 먹 살을 잡았어요. 육두문자 욕을 하면서 ‘뭐야? 뭘테 죄 없는... 영장 청구는 있느냐?’ 영장 있대.
			00:05:01-00:05:27	(삭제할 부분) 왜 가느냐 했더니 왜 텔레비나 냉장고에 나오는 모델이 예를 들어 브랜드 대우나 금성이나 옛날 삼성이나 문양이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기에 속에 있는 부속을 모방을 했답니다. 정수기. 그러니까 타 회사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00:05:28-00:06:27	(32쪽) 그래서 그 물건을 전부 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싣고 20대 1이잖아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 (생략)... 그 뭐 너무 뒹굴고 하나가 옆에 파출소에서 동원이 되고 동네 사람들 구경거리가 됐지요.
2 당시 무슨 일을?	1분 분량	박임자6	00:07:21-00:08:39	(32쪽) 동부지청으로 가서 (압수당한 물건)보관을 하고 그 문 앞에 비밀번호를 저만 알 수 있게 바꿔달라니까 그것까진 협조해 주더라고요. 바꾸고 그기에 부품이 또 좀 비싸서 어디 나가면은 돈이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 (생략)... 너무 많으니까. 넣고 저는 이쪽으로 다단계 회사에 와서 아이들을 도우면서 수습을 하고.
			00:21:55-00:22:51	(35쪽) 신랑 신부 혼수,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단 옷 그런 등등을 그니까 혼수 매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한복 가게지요. ... (생략)... 그래서 광장 시장에서 ‘강남의 또순이가 왔다.’고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 제가 열심히 열심히 한복 사업에 전념했었습니다.
			00:24:49-00:25:15	(35쪽) 저는 이제 본업이 한복 가게를 했지만. ... (생략)...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나니까 전부 다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사위도 그렇고.
			00:25:31-00:26:20	(35쪽) 그 당시 공기 정화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연구를 참 잘했어

	5분 분량	박임자6	00:21:55-00:22:51	(35쪽) 위의 녹취록 내용과 같음
			00:24:49-00:25:15	(35쪽) 위의 녹취록 내용과 같음
			00:25:31-00:26:20	(35쪽) 위의 녹취록 내용과 같음
		박임자7	00:01:45-00:01:48	(36쪽) 완전 가족이 들어갔지요
			00:02:02-00:03:22	(36쪽) 사위는 제2공장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고, 그기에 대한 사위의…… (생략)… 응? 아주 좋아야 좀. 증말 IMF 때문에 저희 이웃에 이는 사람들 많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박임자12	00:18:20-00:20:43	(66쪽)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중간 도매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쇼부가 빠튼데, 가내공업이나 제조업은 참 배고픈 직업입니다. … (생략)… 가내공업은 뭐 거의 인건비 줄일려고 같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장소가 크지가 않아요. 소규모로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지하에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집이 없다면 치더라도 지하실에서 얻어서 하면은 우선은 월세가 싸고 유지비가 적게 나가니까.
			00:21:15-00:23:09	(67쪽) 저희는 이제 다단계 판매회사가 있었고, 가정 제조업이 있었고 두 개가 있다가 보니까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부품을 보통 부속품이에요. … (생략)… 소규모들은 주로 뭐 적은 금액이지만은 뭐 크게도 부도가 안나요, 이익, 이익 뭐 크게 나는 사람들은 삼억 오억. 그것이 연쇄반응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타격이 오더라고요
3 본인 (가족) 삶의 변화	1분 분량	박 임 자 11	00:00:18-00:02:20	(55-56쪽) IMF 전에는 정말… 세상 부러운 게 없었어요. … (생략)… 그러면서 젤 타격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누리다가 마음대로 쓸 거 쓰고 또 정신적 고통은 그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거.
	5분 분량	박임자6	00:10:09-00:12:05	(33쪽) 그렇게 이사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조금 방향하기 시작했어요. … (생략)…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을 친구 집에 옮겨 놓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거… 그때 편지는 빨간 도장이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박임자7	00:03:31-00:06:15	(36-37쪽) 이제 공기 정화기를 하면서 같이 부수적으로 정수기를 조립을 해서 필터까지 씌우니까 다른 매수자들은 필터를 다른 공장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데 … (생략)… 크게 벌려가지고 결국 경매, 경매, 경매까지. 공장 경매 들어 와, 가정사는 살림집 경매 들어 와, 또 현재 경영하고 있는 공장까지 문 닫게 돼. 그러니까 타격이 엄청나게 크지요
		박임자7	00:14:43-00:16:03	(39쪽) 일단 있을 곳이 없잖아요. 저희는 남은 셋방을 전전하다 보니까 언제 이사갈지도 모르고 … (생략)… 뭐 이리저리 타고 한 두대가 남았는데 처분할 수가 없어요. 폐차도 못 해.
		박임자9	00:12:25-00:14:11	(49쪽) 가정을 꾸리는 동안 또 액운이 겹치더라고요. … (생략)… 신촌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참 아무 것도 없이 기가 막히지요
		박임자 11	00:00:18-00:02:20	(55-56쪽) 상동
4 주변에 일어난 일	1분 분량	박 임 자 12	00:03:05-00:03:47	(62쪽) 저희 이웃에서는 또 아이가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군에 가고 하나는 고등학생 때 아주 IMF를 당해가지고 조그만한 가내공업을 했던 사람인데 … (생략)… 그런 광경을 보고 저뿐만 아니고 이런 광경이 많이 IMF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00:23:49-00:24:56	(67쪽) 주로 여자들은 가는 것이 파출부, 남의 집 가정부, 그리고 그 당시 IMF에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엄청나게 많이 난무했습니다. … (생략)… 그냥 노숙자 아닌 노숙자 아니면은 자기 생명을 또 포기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5분 분량	박 임 자 12	00:03:05-00:03:47	(62쪽) 상동
			00:06:52-00:08:32	(63쪽) 예 보통 보니까 그 잘 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사채업자였어요. 제가 아는 주위에는 그 제가 아는 사채업자가 몇 분이 계신데, 은행에 돈 얻지 못하죠. 보증인 세울 사람 없죠. … (생략)…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사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고, 우리 딸 셋은 그렇게 모질게, 그런 경험은 없어서 참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느꼈어요
			00:08:51-00:11:00	(63-64쪽) 제가 집이 성수동이었는데, 심지어는 그 당시에 IMF 때, 하일동에 그 포장마차 그러니까 포장마차를 지금은 하지만은 그때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 (생략)... 그런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00:11:05-00:12:02	(64쪽) 서울역에 가서 노숙하게 된 사연이 하일동 포장마차에서 살고 있다가, 그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전부 포장마차로 전개가 되니까, 나가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 (생략)... 그 서울역 노숙자 그 자리 맡는 것도 또 그러다가 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쫓겨 나서 그렇게 서울역에서 그렇게 노숙을 하고.
			00:23:49-00:24:56	(67쪽) 상동
5 IMF는 어떤 의미	1분 분량	박임자 15	00:00:14-00:01:47	(80쪽) 제가 평소에 느꼈던 IMF 라는 것은 정말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 (생략)... 직접 겪은 나는 IMF란 죽음을 택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가혹하게 말하고 싶어요.
		박임자 14	00:05:16-00:05:38	(75쪽) 나를 잃어버린 게 IMF 같아요. 나 자신이 없어져요. ... (생략)... 할 수 없이 내가 벌어야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00:05:53-00:07:15	(75쪽) 그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듯이 바뀌어 버린 거지요. ... (생략)... 착실히 또 가정을 열심히 돌보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 주는 그런 가정도 있는가 하면 천태만상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걸 겪었습니다.
	5분 분량	박임자 15	00:00:14-00:01:47	(80쪽) 상동
		박임자 14	00:04:18-00:05:38	(75쪽) IMF 전에는 여자들이 평화로웠죠. ... (생략)... 또 예를 들어 내가 나가야 용돈이라도 쓰는데 이렇게 조달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벌어야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00:05:53-00:07:15	(75쪽) 상동
		박임자 15	00:03:57-00:05:07	(81쪽) 저는 그 순간순간들을 참 극복을 잘 했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 (생략)...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역시 난 자식들을 착하게 잘 키워서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00:05:33-00:07:24	(81쪽) 우선 제가 몸소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운동인 것 같아요. ... (생략)... 유산소 운동을 하고 복지회관 또 동사무소, 자치단체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취미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 그 습관이 달라졌더라고요.
6	1분 분량	박임자 15	00:23:07-00:24:54	(85쪽) 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집이 이렇게 좁은데도 꼭 한 가지를 버리지 않고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 (생략)... 그게 IMF가 지나도 버리지 못 하는 제 장롱 열두 자와 문갑, 화장대, 화장장 그걸 아직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5분 분량			없음

(5) 구술자 제공 참고 자료 : 자개농에 대해서 언급은 하였으나 실물을 구술채록현장에 가지고 올 수는 없었음

(6) 문제점

박임자의 구술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지만, 장시간의 구술로 인해 IMF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생애사의 여러 사건들이 등장한다. 1960년대 부산에서의 생활사, 1970년대 서울 생활, 아이들 출산 이야기, 새마을부녀회 활동, 성수대교 붕괴 사건 목격 등 IMF 외의 여러 주제들도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추후 박물관에서 전시 혹은 연구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5) 오준섭(면담자: 이재성)

(1) 생애연보(이력)

1961년	철원 출생
1980년 경	동인천으로 이사, 식당 조리사 근무
1982년 경	부천 송내 공장 근무
1986년 경	김포 대동산업 근무
1988.6.	대동산업이 ‘대경화성’ 으로 사명 변경 (2011년 SECO 계열사 편입, 사명 ‘SECO아이아’)
1994.1.3	대경화성 제안활동 최우수상(대표이사 패)
1996.11.4	품질명장 자격 획득(대통령 패)
1997.1.3	대경화성 10년 장기근속패
1998년	IMF 이후 회사 경영 어려워지고 퇴직
2000년 경	안산에서 ‘다모아자원’ 사업 시작
	(사회활동 경력) 소상공자영업회 회장, 자연과환경보존회 회장, 안산시죽구협회 회장 등

(2) 구술자의 특징

안산의 중견 기업 품질 명장이던 구술자는 IMF 이후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진 퇴사하였다. 그리고 ‘고물상’ 이라고 불리는 자원재활용업체를 시작하였다. 이 구술은 주택가에서 일상용품을 주로 다루는 재활용업체가 아닌 공단에서 공장을 주로 상대하는 산업형 자원재활용업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IMF 직전까지 중견 기업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으며, 10년 장기근속 상을 받으며, 품질 명장으로서 부서원들과 봉사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인생에 최고의 시간을 보내던 한 노동자가 IMF 사태로 인해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되어 재기하기까지의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우연히 ‘고물상’ 재활용업체를 시작하게 된 것이, 역설적으로 IMF 이후 망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는 와중에 구술자에게 기회로 작용하여 사업 기반을 닦고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는 한 시대의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 구술채록의 내용 분석

본인 생애사에 대한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결혼, 퇴사, 창업 등에 있어서 연도가 부정확한 진술이 있다.

구술자는 전체적으로 ‘자수성가’ 한 생애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안에 IMF

사태가 ‘더 큰 성공’을 향한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IMF 이전에 다니던 공장에서 ‘품질 명장’으로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그는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역할을 맡아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지금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의 삶에서 ‘봉사’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동료들과 불우이웃 돕기를 꾸준히 해 왔고, 현재도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

구술자의 생애사는 안산에서 재활용업체가 자리를 잡아 나가기까지의 과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일반적인 재활용업체와 달리 공단지역에서 기업과 공장을 대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운영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고철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크게 변동을 하는데, 이러한 시세 차익을 노린 업주는 돈을 크게 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IMF 이전에 고철 단가가 70~80원일 때 야적장에 고철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업주가, IMF 직후 고철 가격이 400원대까지 오르면서, 모아 둔 고철을 비싼 가격에 팔아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IMF 이후 구술자의 삶은 ‘굽어진 손가락’에서 드러나듯이 많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실직한 가장으로서 고생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구술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후회는 없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말하는 낙천적인 성품을 가졌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연도를 잘 기억하지 않는 듯 보인다. 예비 인터뷰 이후 정확한 생애사적 사실 확인을 부탁했음에도, 인터뷰 당일까지 정확히 연표를 완성해 가져오지 않았다. 부서원들이나 가정에서 ‘독불장군’식의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부분에서 후회를 할 만큼 추진력이 강했으며, 어려운 시절에도 월급의 반 이상을 외부 활동으로 사용할 만큼 사회적 활동을 중시하며 살아온 생애사였다. 철원에서 태어나 고교를 졸업하고 적극적으로 인천으로 가서 요리사가 되기로 하거나, 결혼하여 연고도 없는 김포로, 안산으로 이주하여 결국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일군 것으로 보아 결단력을 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오준섭의 사례는 IMF의 직접적 영향으로 사실상 실직을 한 경우이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재활용업체에 일감이 많아지면서 역설적으로 자기 사업을 일으켜 세우게 된 IMF 극복담이기도 하다.

(4) 구술영상 제작 용 영상 선택

오준섭						
연번	문항 번호	영상 시간	파일명	타임코드	녹취문 시작 지점	녹취문 끝나는 지점
1	1	1분 분량	오준섭-3	15:25 ~ 16:46	(23쪽) 저희가 직접 들은	(23쪽) 이런 거를 좀 느끼

					건 없고,	게 되더라고요.
		5분 분량	해당하는 분량 또는 내용이 없어서 선택 불가			
2		1분 분량	오준섭-2	14:25 ~ 16:33	(15쪽) 아마 안산에서 대경화성이라고 하면	(15쪽) 들어갈 정도로 월급은 샀어요.
3	2	5분 분량	오준섭-2	1) 05:55 ~ 07:46 2) 14:25 ~ 16:33 3) 19:20 ~ 20:59	(12쪽) 저희가 PVC라고 해서, (15쪽) 아마 안산에서 대경화성이라고 하면 (16쪽) 저희 이제 부서로 일단 시작을	(13쪽) 막 타고 이런 경험 이 좀 있었습니다. (15쪽) 들어갈 정도로 월급은 샀어요. (16) 그렇게 관심을 또 많 이 가졌어요.
4		1분 분량	오준섭-3	18:11 ~ 19: 56	(23쪽) 저는 희망퇴직을 한 게 아니고	(24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3	5분 분량	오준섭-3	1) 11:55 ~ 15:14 2) 17:01 ~ 20:55	(22쪽) 그때는 회사가 많 이 어수선했죠. (23쪽) 그게 한 제가 기억 으로는	(22쪽) 계속 지속됐죠, 그 때 당시에. (24쪽) 어쩔 수 없이 결정 한 사안입니다.
6	4	1분 분량	오준섭-3	22:16 ~ 23:26	(24쪽) 제가, 제가 완전히 뭐 사표 수리	(25쪽) 고만돈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5분 분량	해당하는 분량 또는 내용이 없어서 선택 불가			
7	5	1분 분량	오준섭-5	00:48 ~ 03:30	(34쪽) 네. 그런데 뭐 퇴직과 동시에	(35쪽) 아직도 그 기억이 또 생생하네요. (웃음)
8		5분 분량	오준섭-3	23:51 ~ 28:33	(25쪽) 저희 이제 퇴직하 고 나서	(26쪽) 그때 제일 많이 느꼈을 거예요.
9	6	1분 분량	오준섭-6	05:50 ~ 07:40	(42쪽) IMF...라는 게 이제 각 회사,	(42쪽)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5분 분량	해당하는 분량 또는 내용이 없어서 선택 불가			
10	문 항 추 가	1분 분량	오준섭-6	10:27 ~ 11:51	(43쪽) 집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43쪽)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크게 들었죠, 사실 상.
11		5분 분량	오준섭-6	07:59 ~ 14:00	(42쪽) 어려운 건 많았죠.	(43쪽) 이제 굳게 마음을 먹었죠, 사실상.
12	문 항 추 가	1분 분량	오준섭-4	14:40 ~ 16:54	(30쪽) 그때 당시 이제 돈 있는	(31쪽) 그런 현실이었더라 고요. 그때 당시에.

(5) 구술자 제공 참고 자료

<물품 - 3점>

제안 활동 최우수상(1995년 1월 3일)

품질 명장 동패(대통령패, 1996년 11월 4일)

10년 장기근속 패(1997년 1월 3일)

<사진 pdf - 9개 파일>

1)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철원 직탄 유원지

2) 1990년 분임발표회 사진 2점

3) 1992년 부서원 야유회(앞에 두 딸과 뒤편에 지원하던 소년가장 형제들)

4) 부서 활동 사진

- 5) 가족사진과 취미활동 사진 2점
- 6) 1996년 품질경영대회 품질 명장패 수여 사진 2점

(6) 문제점
(없음)

6) 이철상(면담자: 윤택림)

(1) 생애연보(이력)

1967.10	충북 영동 출생
1972.	충남 대전으로 이주
1981.3	충남중학교 입학
1984.	경북 김천고등학교 전학
1987.3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1991.3-1992.2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전대협 부의장
1995.11-1997.4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부장
1997.9-2008.2	브이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2) 구술자의 특징

이철상은 1980년대 학생운동 출신의 벤처사업가라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87학번으로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생운동에 투신하였다. 1987년 사회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전에 있는 부모와 떨어져서 홀로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학생운동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부의장을 역임하였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에서 활동을 하여 현재 한국 정치의 중심 세력이 된 86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운동권이 민주화로 인하여 기성 정치권으로 진입하던 시기에 정치보다는 기업을 선택하였는데, 공대 출신이 아니고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벤처사업도 대표적인 벤처 성공 사례인 넥슨, 네이버, 엔씨소프트와 같이 정보통신 쪽이 아니라 휴대폰 배터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선택한 것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IMF 사태가 나기 바로 직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오히려 환차익으로 크게 돈을 벌었고, 김대중 정부의

벤처 산업 육성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벤처 산업 육성이 IMF 사태로 인해 잘 작동하지 않게 된 시장경제 생태계를 조정하여 대기업 회사원 밖에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국내 20대 기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3) 구술채록의 내용 분석

이철상의 삶은 대학 입학 전 시기, 학생운동 및 반정부 활동 시기, 벤처사업 시기, 그리고 부도 이후 시기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학 입학 전 시기: 구술자는 1967년 충북 영동에서 교사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다. 교사인 아버지의 영향인 듯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구술자가 6세에 대전으로 이사했고, 대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다. 구술자는 대전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고인 경북 김천고등학교로 전학하여 1987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하였다. 공부를 잘 하지만 순종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유년기로 보인다.

-학생운동 및 반정부 활동 시기: 구술자는 대학에 진학하자 경제학과 과대표를 하였고, 노태우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하였는데, 당시 농활이나 사당동 재개발지역민들과의 투쟁이 엘리트 학생들이 민중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경험으로 서술하고 있다. 1991년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되었고 전대협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이 시기 백골단과의 폭력적인 대결 경험, 학생운동 문화와 학생운동에 참여한 여학생들에 대한 구술을 들을 수 있었다.

1992년 이후에는 4년 동안 수배되어 숨어다니다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 사면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군대도 장기수배자들에 대한 제5국민역으로 처리되었다. 1995년에서 1997년까지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에서 정책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뜻을 접고 IMF 사태 직전에 사업을 시작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당시의 성격과 활동,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술이 있다.

-벤처 사업 시기: 구술자는 1997년 9월에 휴대폰 배터리를 수입 판매하는 브이케이 회사를 차렸다. IMF 사태로 환차익을 크게 보아서 오히려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사업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회사를 키워서 휴대폰을 생산하게 되어 외국에 수출하였고, 2002년 제39회 무역의 날 대통령상, 2004년 한국의 고속성장기업 50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SK에 휴대폰을 공급하다가 국내 판매가 안 되자 부도가 났다.

-부도 이후 시기: 구술자는 회사가 부도가 난 후 2년 동안 회사의 법정관리인을 하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자금 수사를 하면서 검찰에 끌려

가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노무현 정부 시 학생운동 출신의 사업가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다. 또한 구술자는 조사 받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인 포기를 종용받아 그만두었다. 검찰에서 풀려난 후에는 한국에서 살기 싫어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지내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현재는 전기버스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1980년대 말 학생운동 상황과 1995년 민주화 이후 운동권의 변화, 운동권 내에서 벤처산업으로의 진입, 1997년 IMF 상황과 벤처산업의 발전에 관한 의미 있는 구술이다.

(4) 구술영상 제작 용 영상 선택

	이철상					
연 번	문항 번호	영상 시간	파일명	타임코드	녹취문 시작 지점	녹취문 끝나는 지점
1	1	1분 분량	이철상-4	16:10 ~ 17:16	(49쪽)음... IMF는 막 신문, 방송 이런 거 보고 알았죠 우선은	(49쪽) 이게 제 논문 제목이었어요
		5분 분량	이철상-4	16:10 ~ 19:16	(49쪽) 음... IMF는 막 신문, 방송 이런 거 보고 알았죠 우선은	(50쪽) 그럴 정도로 영터리로 막 이렇게 휘말려 들어갈지는 몰랐죠.
2	2	1분 분량	이철상-4	03:47 ~ 04:37	(45쪽)제일 아팠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45쪽)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97년 봄경에.
3		5분 분량	이철상-4	03:47 ~ 04:37	(45쪽)제일 아팠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45쪽)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97년 봄경에.
				08:33 ~ 09:09	(46쪽)이런저런 인연으로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게 됐고	(46쪽)난 몰랐어요
				11:48 ~ 13:56	(47쪽)근데 그 당시에 삼성은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48쪽)그래서 사업 시작하고 한 10억을 금방 번 거죠. 환 차익으로만
4	3	1분 분량	이철상-4	22:01 ~ 24:01	(50쪽)제가 창업할 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51쪽)또 20 퍼센트는 또 워너(winner)들도 있는 거거든요.
5		5분 분량	이철상-4	22:01 ~ 25:50	(50쪽)제가 창업할 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52쪽)그런 친구들은 뭐, 그냥...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렇죠.
	4	1분 분량	이철상-7	03:07 ~ 04:24	(72쪽)제 주변에는. 뭐. 제가 잘 아는 주변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72쪽)그만두기도 하고. 나이도 있고. 예.
		5분 분량	1분 분량 외 더 이상의 내용 없음			
6	5	1분 분량	이철상-7	00:03 ~ 01:37	(71쪽)IMF와 묘하게 겹쳐서	(71쪽)가족들이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잘 버텨낸 시기
7		5분 분량	1분 분량 외 더 이상의 내용 없음			
8	6	1분 분량	내용 없음			
9		5분 분량	내용 없음			
10	문 항 추 가	1분 분량	이철상-5	01:33 ~ 2:47	(53쪽)근데 그 IMF로 인한 변화는	(54쪽)그게 이제 김대중이라는 사람이죠.
11		5분 분량	이철상-5	01:33 ~ 2:47	(53쪽)근데 그 IMF로 인한 변화는	(54쪽)그게 이제 김대중이라는 사람이죠.
				04:02 ~ 06:40	(54쪽)그런데 김대중 씨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55쪽)이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대개 그때 스타트했던 것 같아요.
				13:56 ~ 14:35	(57쪽)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57쪽)그때 김대중이라는 분이 이렇게 벤처 제도를 만들어서 벤처들을 많이 키워 놓은 거죠.

12	문 항 추 가	5분 분량	이철상-8	09:26-13:25	(84쪽)IMF가 이제 국가가 보유한 외환이 바닥이 나고	(85쪽)잘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question)이에요.
13	문 항 추 가	1분 분량	이철상-8	15:40-16:53	(86쪽)말씀드렸듯이, IMF가 기존 질서가	(86쪽)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볼 때.

문항 추가 1) 7번 문항: IMF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문항 추가 2) 8번 문항: 다시 IMF사태가 올 것인가

문항 추가 3) 9번 문항: 한국 사회에서 IMF와 벤처 사업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5) 구술자 제공 참고 자료

(없음)

(6) 문제점

구술자가 사업으로 바빠서 구술자 감독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고, 구술자 제공
참고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

7) 방기홍(면담자: 이재성)

(1) 생애연보(이력)

1969년 경	충남 천안 송정초등학교 입학
1974년 경	충남 천안 아우내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진학 포기
1978년 경	천안 덕진완구 근무
1981년	큰 형님 작고
1982년	어머님 작고 (아버지는 1966년에 작고)
1990년	천안 덕진완구 인수, 결혼
2000년 경	사업 확장
2001년 경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입학, 수료
2011년 경	문구점,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 시작

(2) 구술자의 특징

구술자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단체의 대표이며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적극적 시민이다. 단순히 특정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복지, 공정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정규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업 경험과 이후 단체 활동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종합되고 체계적인 인식, 판단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구술 내용은 가치가 있다. 구술자는 문구유통업자의 위치로 인해 제조업과 소비자의 중간에서, 그리고 학교와 학생과 교육 당국과 업계의 중간에서 복합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나의 정책, 흐름이 세계화와 의무교육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과정속에서 어떻게 얹혀 있는지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학교 앞 작은 문구점 등이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는 ‘생활세계적 시각’이 신선하다.

(3) 구술채록의 내용 분석

구술자는 약간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부친이 이북에서 혼자 내려와 연고가 없는 충청북도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친지 가족이 적은 환경에서 자라났다. 부친은 구술자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고, 홀어머니가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셨다. 본인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생업에 종사할 만큼 가난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1980년도 초에는 큰형과 어머니도 연이어 작고하면서 20대 청년기에도 오직 일만 하는 삶을 살았다.

문구도매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평생 이 업계를 떠나지 않았고, 생애 후반부에는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으로서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가난과 불행한 가족사 속에서 청년기를 보내다가 1990년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가족의 도움으로 자기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 점 때문에 과거의 불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억보다는 긍정적인 기억이 더 강하게 자리잡은 듯 하다.

1990년대는 구술자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기반이 닦여 나가는 과정이었으나, 1997년 IMF를 기점으로 위기가 찾아왔다. 구술자의 경우 IMF로 인해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복합적 요인에 의해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IMF 이전에 시작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유통업 개방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의 대형마트가 시장에 진출했다. 그리고 교육정책 속에서 ‘무상교육’, ‘의무교육’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학용품과 학습준비물에 대해 학교와 교육 당국이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또한 IMF 사태 이후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그러한 정책이 복지 차원에서, 그리

고 정치인들의 공약을 통해 점차 확산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문구 도소매점들의 큰 위기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소상공인 생계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챙기면서 ‘예산’을 줄였고, 이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기자재, 최저가의 용품을 제공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다. 또한 ‘최저가 입찰’ 문제로 인해 국내 문구산업, 학습용품 산업 등 제조업 내의 가격경쟁 때문에 점차 생산을 중국으로 넘기게 되어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세계라고 할 수 있는 학교와 동네의 작은 가게들이 사라지면서, 생활세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경제적 교육의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구술자는 자신의 업계의 문제로 시작하여 점차 타 업종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결합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발전, 그리고 전체 사회적 차원의 경제민주화 등을 위해서 현재 ‘지역 화폐’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후반부 구술은 그가 ‘살아 온’ 내용보다 그의 생각, 판단, 의견, 주장 등이 중심이 되어 있다. 후반부의 구술은 매우 길게 거침없이 이어진다. 그는 지난 10여 년 간 제도 개선을 위한 단체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그런 만큼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고, 모순되는 부분을 연결하고, 정책적 사항을 고민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하나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를 완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방기홍의 구술을 ‘배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조차 포기해야 했던 구술자가 점차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구술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못 배운 한을 동생을 통해서 해소하려 했고, 동생이 ‘행정고시’를 포기하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사업을 통해, 그리고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일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 전문적인 일을 통해서 점차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견해를 수립하게 되었다.

(4) 구술영상 제작 용 영상 선택

방기홍						
연	문항	영상	파일명	타임코드	녹취문	녹취문

번	번호	시간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1	1	1분 분량	방기홍-3	1) 01:29 ~ 02:05	(24쪽) 글썄요 IMF 사태가 터졌다는 건 뭐	(25쪽) 잘 알지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2) 02:45 ~ 03:48	(25쪽) 96년도에 우리 딸 내미 태어날 때	(25쪽) 그냥 그렇게 맞아 들었던 것 같아요.
		5분 분량	해당하는 분량의 답변이 없음.			
2	2	1분 분량	방기홍-2	19:37 ~ 20:42	(19쪽) 재밌었죠. 뭐 해마다 좋아졌으니깐요	(19쪽) 시간이 사실 없었죠.
3		5분 분량	방기홍-2	1) 21:59 ~ 23:10	(20쪽) 제가 처음 할 때는 주로	(20쪽) 진짜 장사하기가 좋았던 거죠.
				2) 19:37 ~ 20:42	(19쪽) 재밌었죠. 뭐 해마다 좋아졌으니깐요	(19쪽) 시간이 사실 없었죠.
4	3	1분 분량	방기홍-3	1) 10:55 ~ 11:39	(29쪽) OECD 가입을 하면서 무상교육이	(29쪽) 정부 예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2) 12:11 ~ 12:31				(29쪽) 그게 딜레이가, 미뤄져서	(29쪽) 그게 2000년도 같아요.	
5		5분 분량	방기홍-3	1) 9:35 ~ 10:45	(28쪽) 제가 기억하기로 유통산업발전법을	(28쪽) 우리 업계는 치명적일 것이다.
				2) 10:55 ~ 13:12	(29쪽) OECD 가입을 하면서 무상교육이	(29쪽) 시작한 것도 2000년도부터고.
6	4	1분 분량	방기홍-3	04:55 ~ 06:18	(26쪽) 저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26쪽) 우리 형한테도 미쳤던 것 같아요.
7		5분 분량	방기홍-4	1) 15:27 ~ 16:30	(41쪽)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는 형님이	(42쪽) 우리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2) 17:21 ~ 17:58	(42) 그게 피해 다니면서 사는 자체가	(42쪽) 노숙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8	5	1분 분량	방기홍-6	22:53 ~ 23:59	(64쪽)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64쪽) 이것이 IMF를 보는 제 생각입니다.
9		5분 분량	방기홍-4	19:43 ~ 21:36	(43쪽) 개인적으로는 불행 중 다행으로 크게	(43쪽) 만큼은 할려는 마음은 갖고 있죠.
				22:34 ~ 23:44	(44쪽)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44쪽) 내 소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6	1분 분량	해당하는 내용의 답변이 없음.			
		5분 분량				
10	문항추	1분 분량	방기홍-5	17:40 ~ 18:41	(52쪽) IMF 전에는 사실은 자영업이	(52쪽) 키워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11	가 (7)	5분 분량	방기홍-5	17:40 ~ 21:24	(52쪽) IMF 전에는 사실은 자영업이	(53쪽) 제 생각이고 소신 입니다.
12	문 항	1분 분량	방기홍-6	01:09 ~ 03:08	(57쪽) 우리 업종만 해도 사실은	(57쪽) 전혀 생각하지 못 했던 거거든요.
13	추 가 (8)	5분 분량	방기홍-6	03:50 ~ 04:56	(57쪽) 그 처음에 이제 유통과정에 뛰어들 때	(58쪽) 못 하겠다고 나자 빠지죠.
				05:52 ~ 07:11	(58쪽) 그러면 어떤 방법 을 찾느냐.	(59쪽) 이건 개선될 수 없 다. 그런 요구죠.

문항 추가 1) 7번 문항: IMF는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항 추가 2) 8번 문항: IMF 이후 대형유통업의 성장은 문구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5) 구술자 제공 참고 자료

(없음)

(6) 문제점

(없음)

3. 구술영상 제작 보고

본 연구팀의 영상촬영팀은 총괄 감독인 고혜미 감독을 포함하여 촬영, 조명, 편집 및 보조, 디자인, 사운드 믹싱을 담당하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UHD 영상 촬영을 위하여 총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1)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 제작의 제작방식 및 스텝 구성의 특징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은 UHD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불과 수년 내에 미디어 콘텐츠들은 UHD화 할 전망이다. 지상파 UHD 방송은 2017년 5월 말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021년에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은 비록 전시는 HD 방식이지만 수집된 영상자료는 향후 한국현대사를 증언하는 소중한 사료로 기능할 것이므로 과감히 UHD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UHD(Ultra High Definition)란 가로 해상도가 4 Kilo Pixel 로 차세대 고화질 해상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3,840×2,160과 4,096×2,160가 고려되고 있으

며 텔레비전 방송용 FHD 1,920 x 1,080의 4배인 3840×2160의 해상도를 가진 디바이스가 점차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은 디지털 시네마의 표준규격인 Digital Cinema Initiatives (DCI)에서 규정된 4K, 4,096×2,160 으로 촬영되었으며 변환본과 전시용 영상클립은 FHD(1,920 x 1,080)DM로 편집되었다.

구술영상은 간헐적으로 박물관과 전문기관에 의해 제작되었지만 전시 맞춤형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번 연구는 1990년대 IMF 사태라는 중요한 현대사 부분을 채우는 매우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고려해 이번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 제작팀은 2~30년 이상의 방송 영상제작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들로 조직되었다. 풍부한 방송 영상 제작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차후 확대될 수 있는 전시 맞춤형 영상의 제작에 부족하나마 작은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특히 충분한 제작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카메라 촬영이 가능하면서도 조명과 오디오 경험이 있는 스태프를 구해 촬영에 절대적인 요소인 조명과 카메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촬영팀을 꾸렸다.

2)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 촬영 조건

(1) 세트

오컬러티의 균질한 영상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문 영상 촬영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 상 대한민국의사박물관 6층 강의실 일부 공간에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촬영이 이루어졌다. 가장 주요한 영향은 스튜디오 렌트비로 2019년 현재 12시간 기준 1일 스튜디오 렌트비 120-150만원, 조명 170-200만원, 세트 (블랙 페인트 및 암막. 공간에 따라 실비 추가) 비용이 제작비에 고려되지 않은 점이 컸다.

촬영이 예정되면 당일 촬영시간보다 2~3시간 일찍 현장에 도착하여 강의실을 촬영이 용이한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탁자와 의자 등을 변경하여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조명과 카메라, 모니터 등을 설치한 후 카메라테스트를 거친 후 촬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구술자에게 집중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배경은 블랙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암막 등 관련 세트를 준비하였다. 차후에는 촬영 스태프가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조명과 오디오

영상 시청 시 카메라 화각과 카메라 워킹 등도 중요하지만 시청자(전시관람자)가 구술자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구술자가 중요한 인물임을 극대화하려면 조명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구술자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조명방식을 시도하였다. 기본 3점 조명을 사용하였고,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 광량이 큰 하이라이트와 컨트라스트의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였다. 반사광과 유산지 등을 이용하여 질감을 미세하게 조절하였고 입체감을 주기 위해 역광라이트를 추었다. 이를 위해 조명감독 출신 카메라 감독을 스텝으로 참여시켜 적절한 조명 포맷을 세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촬영장이 광화문에 접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의실이다 보니 광화문 행사와 집회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행사 관련 오디오와 진동이 미세하게 녹음에 들어와서 구술영상 촬영이 중반을 넘어서는 지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붐마이크와 wireless 마이크를 고성능 pin mic로 바꾸어 촬영하기도 하였다. 오디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디오감독 출신 카메라 감독을 스텝으로 참여시켜 적절한 오디오 포맷을 세팅하도록 하였다.

(3) 카메라

이번 구술영상 촬영은 납품 조건에 스틸 촬영이 있어 캠코더 보다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스틸 촬영을 위하여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기종은 파나소닉, 캐논, 소니 등 세 가지 종류의 카메라를 샘플 촬영한 결과 스킨 톤이 가장 무난한 캐논 기종으로 채택하였다. 사용된 카메라는 캐논 5D MARK4 동일기종 2대로 촬영되었으며 바스트샷과 풀샷으로 분리하여 고정 촬영하였다. 그러나 미러리스 4K 촬영 프로세스의 특성상 카메라 발열과 메모리의 한계로 인해 중간에 강제적으로 쉬는 시간이 발생하였다.

구술 러닝 타임이 길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미려한 영상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영상촬영전용 캠코더 3대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4) 메모리

이번 연구는 역사성은 물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니만큼 영상결과물을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외장매체는 물론 클라우드 등 저장방법을 다각화하여 데이터 손실을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촬영한 영상의 저장은 대개 저장장치의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복사본을 2배수로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영상제작현장에서 4K의 경우는 고비용이 투여되는 만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장매체의 수를 3배수로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구술영상 촬영의 경우 저장매체는 차세대 저장매체로 최근 가격 저하로 경쟁력이 큰 SSD 방식과 기존의 영상저장장치로 사용되어 온 HDD방식을 고려하였다. 1차 저장매체로 선택한 SSD는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고용량의 데이터로 인한 부하로 인해 오히려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되었고 결국 데이터 저장 속도 저하로 이어져 촬영지연을 초래하였다.

결국 발열로 인한 데이터 손실 및 오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저장매체에 대한 고려로 HDD를 추가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SSD는 최대 2TB의 용량이어서 장시간 인터뷰를 한 구술자의 경우 두 세 개의 저장장치에 저장하게 되어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점이 고려되었다.

외장하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의 클라우드에 원본을 수시로 저장하는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를 추진하였다.

(5) 촬영 스텝

이 연구는 구술채록과 더불어 구술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는 두 가지 작업이 병행되면서 기존의 구술채록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촬영 보조원의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전시용 구술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속의 모습의 질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구술자의 분장 및 촬영 환경의 여러 가지 잡무(음료수, 간식 준비, 정리정돈, 감독 보조 등)을 해줄 보조원이 필요했다. 특히 구술자의 안정된 스킨톤을 위하여 분장이 필요했으나 제작조건 상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충분한 분장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안서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촬영 스텝으로 데이터매니저가 있다. UHD 영상촬영의 특성상 고용량의 데이터관리를 위하여 전담 데이터매니저를 두었다. 이는 FHD보다 4배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UHD 특성 때문으로 현장에서 촬영이나 연출 스텝이 데이터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문제점/ 아쉬운 점

본 구술영상의 제작을 맡고 있는 총괄 감독은 1987년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출연자를 섭외 및 취재한 것을 토대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방송작가 겸 연출자이며 현재 대학원에서 미디어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번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을 제작하면서 방송 다큐멘터리 영상제작과정과 비교해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보고하고자 한다.

(1) 방송 다큐멘터리 영상과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의 차이점과 공통점

방송 다큐멘터리 영상과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제 공되는 횟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방송환경이 다양화되면서 방송콘텐츠가 뉴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포맷으로 재구성 및 재활용되는 경향이 심화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송콘텐츠가 편성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수 회에 그친다는 점에 반해 전시 영상콘텐츠는 특정 기간 동안 무수한 반복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점은 방송 즉, 매스 미디어가 가지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장 점을 수용하는 융합미디어 콘텐츠로서 전시영상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특정한 공간에서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관계’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정보나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매 스 미디어 연구에서 매스 미디어보다 매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는 증거 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구술 전시 영상은 바로 이러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을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수용하면서 극대화 하고있는 새로운 영상 포맷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증거로 기존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상호작용 즉, 대화는 공간이라는 제 한성으로 인해 확대될 수 없었지만 전시 구술 영상의 구술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하여 전시 영상이라는 전달방식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와 제스처로 전달할 수 있다. 구술영상을 접하게 된 다수의 개인들은 구술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이야기를 통해 빠르게 ‘관계’를 형성하며 이야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IMF 사태와 같이 공통의 기억과 경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1990년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 적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기대를 충 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방송콘텐츠와 전시 구술영상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소비의 대상이라는 점 이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구술영상 제작의 구술자들의 이야기가 깊은 공감을 나누기에는 다소 미흡함이 발견된다. 특히 이번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을 제작하면 서 가장 의문을 가졌던 점은 구술자들이 구술하는 내용이 너무 평이하고 일반적이 라는 점이다. 이는 구술자의 선택과정에 있어 충분한 시간과 선택을 할 만큼 풀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탓도 있지만 구술자 중심의 구술연구방법론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다큐멘터리와 같은 방송영상제작이었다면 훨씬 더 조직적인 섭외 과정과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구술자를 섭외했을 것이다.

또한 구술을 이끌어내는 방식도 구술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내버려두는 방식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스스로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발화를 유도했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방식이 전통적인 구술사 방법론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전시 구술영상이라는 새로운 융합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닌지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구술자의 이야기의 검증과정이 없다는 점도 의문이었다. 구술자의 구술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만일 방송이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추진하여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구술 내용은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다.

(2) 구술자 선택과 구술의 자율성과 연구윤리 문제

방송 다큐멘터리에서의 인터뷰는 특정의 주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제와 목적에 적절한 인터뷰이(구술자)의 선택과 인터뷰 영상 촬영이 이루어진다. 즉, 주제 맞춤형 구술자를 섭외하는 것이다. 방송의 가장 큰 역할이 여론형성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이슈를 극대화 혹은 증폭시킬만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별하여 섭외한다.

또한 섭외된 사람으로부터 주제와 관련된 가장 강렬한 경험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한다. 때로는 당사자의 이야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인들을 적극적으로 탐문 조사하여 당사자가 잊고 있던 구체적인 경험을 찾아내기도 하며, 특정의 기억과 관련된 장소에 함께 방문하거나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학술적인 구술사연구방법론에서는 구술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연구윤리 문제화 될 수 있는 지점일 것이다.

한편,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은 그 구술의 내용이 ‘전시’ 된다는 점에서 방송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시된다는 점에 동의한 구술자는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즉,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의 면담자에게는 학술적인 구술과는 달리 구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인터뷰 기술

본 영상은 전시맞춤형 영상이므로 “영상에 담기지 않았지만 추가되어야만 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참고” 하는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면담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특히 미러리스 4k 카메라를 채택함으로써 30분 이후 배터리와 메모리카드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동안 면담자와 구술자의 대화를 가급적 삼가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말해버린 내용을 실제 구술영상 촬영 시에는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면담자의 심리적 압력이 컸다.

보통 영상 촬영에 익숙한 진행자나 방송제작진의 경우 이렇게 촬영 도중의 비는 시간이 생길 경우 오히려 다음 인터뷰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면담자들이 학술적인 구술사연구방법론에 익숙한 전문 연구자인데다 영상 촬영에 익숙하지 않아 공백효과를 얻기보다는 공백으로 인한 이야기 끊김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영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영상제작자가 1차 구술채록 작업에 투입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Ⅲ. 연구의 성과와 한계

본 연구는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 제작을 위하여 기존의 구술채록과 구술 콘텐츠 제작이라는 두 작업을 병행하는 국내 최초의 실험적 연구였다.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본 연구가 이런 성과도 있지만 또한 새로운 시도가 잘 구현될 환경 조성이 매우 부족하여 한계도 드러났다. 구술사는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이고 따라서 구술자가 사회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선정된 구술자들이 IMF 사태를 경험한 다양한 한국인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짧은 연구 기간(4개월)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는 IMF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담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1. 구술자 직업군의 다양성 확보

원래 제안된 구술자의 범주에는 제조업 종사자, 금융권 회사원, 여성노동자, 자영업자, 벤처 창업자, 청년 취업자, 당시 전업주부, 당시 학생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선정된 구술자는 산업노동자(복기성), 귀촌자(부산은행 출신-조용섭), 자영업자(오준

섭), 유통도매상(방기홍), 벤처사업가(이철상), 자녀(학생-홍순영), 부모(가내공업-박임자)가 되었다. 따라서 IMF 사태 당시 대기업에서 퇴출된 여성노동자와 당시 기업에 취업되었으나 취소된 청년 취업자는 포함되지 못했다.

사실 IMF 당시 기업이나 회사에서 퇴출된 여성노동자들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 대기업 취업이 취소된 청년들도 소수여서 찾는 것이 힘들었지만 대신 당시 학생으로 자녀세대였던 구술자(홍순영)를 통해 청년실업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부모세대로서 전업주부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경영하는 가내공업에 종사했던 구술자(박임자)로부터 IMF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주부들의 취업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한국의 대표적인 자영업인 치킨집 사장님을 섭외했으나 안되어서 중소기업 출신인데 IMF 때 회사가 망하자 재활용업체를 시작하여 자수성가한 구술자(오준섭)으로 대체되었다. 제안서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유통업에 종사하는 구술자(방기홍)을 통해서 도소매업에 대한 IMF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금융권 회사원이었던 구술자(조용섭)을 통해서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IMF 이후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한 시장경제에서 탈출하여 귀농 귀촌하여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추구한 사례도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원래 계획에 따른 구술자들을 다 확보하지 못했지만 직업군에서는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IMF 사태에 대한 대기업 종사자 보다는 자영업자의 경험들이 더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세대별 IMF 경험의 다양성 확보

원래 제안서에서 세대의 경우 IMF를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30대 후반에서부터 6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에서 구술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선정된 구술자들의 연령대는 1940년대 생 1명, 1950년대 생 1명, 1960년대 생 3명, 1970년대 생 2명이다. IMF 사태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 그중에서도 1950년대 말 세대가 가장 IMF의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선정된 구술자 중 베이비 붐 세대가 4명으로, IMF 때 가장 활발하게 경제적으로 활동했던 세대의 경험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 부모로서의 IMF 사태 경험적 차이도 반영되어 있다.

3. 기존 IMF 관련 작업과의 차별성

IMF 사태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주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에서 이루어졌는데, 대개는 양적 연구로서 IMF 사태가 사회와 경제 구조에 준 영향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정부나 기업에서는 ‘IMF 극복’이 주된 관심사였다. 반면 학계 밖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당시 대기업 종사자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명예 퇴직자가 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과 이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많이 다루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경우를 다룬 것이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의 전쟁](2010. 연출 이상욱 감독 태준식), 금융권 구조조정을 다룬 EBS [인터뷰 대한민국 - 1988년생 1부 ‘나는 IMF생입니다.’](2018년 1월 20일 방송),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노동자 정리해고를 다룬 다큐멘터리 [밥, 꽃, 양](2001. 감독 임인애)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계의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구술생애사를 통한 질적 연구를 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대한 본격적인 구술채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의 입장이 아니라 구술자의 입장에서 IMF에 대한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구술자들이 대기업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 기존 다큐멘터리와는 다른 경험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다큐멘터리는 IMF 사태 자체보다는 저항이 주요한 주제다. 시청자들은 다큐멘터를 통해서 IMF 사태가 실직 노동자들의 삶에 준 충격을 이해하지만 대기업 종사자들이 전체 인구 중 소수이다 보니 공감대의 형성은 미약하다. 반면 선정된 구술자 중 복기성(쌍용자동차 노동자)과 이철상(벤처사업가)을 제외하고 구술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나 보니 대다수의 소시민인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 겪었던 IMF 경험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구술영상은 박물관 관람객들과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생애사적 접근의 장점

본 연구는 7명의 각기 다른 세대와 직업군에 속한 구술자들이 IMF 사태라는 구조적 변화 상황 속에서 각 개인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특수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IMF 경험은 생애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위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드러난다. 홍순영과 같이 98학번이 경험한 IMF는 90년대 말 학번들이 직면한 청년 실업과 공무원 시험 붐과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강화 속에서 청년들의 일반적인 선택을 보여준다. 동시에 IMF로 부도가 난 자영업자 부모를 가지고 있던 구술자의 개인적인 경험(대학생이 되었는데도 부도가 나서 식당일을 할 수 없었던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을 보여준다. 1961년 생인 오준섭은 중소

기업의 품질명장으로 1990년대 초 결혼도 하고 안정적인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IMF 사태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다. 그는 중소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노조의 도움으로 조직적인 투쟁을 할 수도 없었고, 다시 취직을 하기보다는 재활용 업체라는 자영업을 선택하였는데 그러한 선택이 오히려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87학번으로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이철상도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계로 진출하는 운동권 출신들과 달리 기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1997년에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판매되기 시작한 국내 휴대폰에 배터리를 제공하는 벤처사업가가 되었는데, 구술자는 오히려 IMF 사태로 인해 환차익으로 크게 이익을 내었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박임자는 1997년에 51세로 가내공업을 가족과 경영하면서 중산층으로서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나 IMF 사태로 부도가 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계층적으로 하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생애사적 관점에서 볼 때 IMF 경험은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개인들이 속한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5. IMF 사태에 대한 주관적 의미화

본 연구는 IMF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서 개인적 삶의 맥락에서 IMF 경험이 드러나기 때문에 IMF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의미화를 알 수 있다. 학계의 연구는 IMF 사태에 한국사회 전체에 끼친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 내지 조명했다면, 이번 연구는 미시적 연구로서 각자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에서 IMF 사태를 경험한 개인들이 서술의 주체가 되어 IMF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인 복기성은 IMF 사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여 의식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1997년에 벤처사업가가 된 이철상에게 IMF 사태는 학생운동가에서 벤처사업가로 탈바꿈하는 시기였으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구조적 변환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입지와 정체성을 만들어간 시기였다. 1956년생인 조용섭도 IMF 사태는 부산은행이라는 금융권이 구조조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면서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귀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98학번인 홍순영에게 IMF 사태는 중산층으로서의 삶의 몰락이었고, 가족경영의 소규모 자영업이 제공했던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시기였다. 오준섭은 IMF 사태로 중소기업의 품질 명장에서 실업자로 되었지만 재활용품 업체를 세워 재기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 준 시기였다. 박임자도 IMF 사태로 가족경영이 무너지면서 가족까지 해체가 되어 중산층의 지위를 잃은 죽음과 같은 사건이었다. 1969년생인 방기홍 문구도매상이라는 유통업이 IMF 사태 이후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직면하게 된 문제들을 인식하여 소상공인들의 이

익을 대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주관적 의미화는 전시 현장에서 관람객들이 IMF에 대한 개인적 경험들과 조우하는 지점으로서 전시가 소통과 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6. 전시용 구술영상 제작을 위한 구술사 인터뷰의 장점

기존의 구술채록은 음성 녹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해도 기록을 위한 자료 수집이지 본 연구처럼 구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시용 구술영상을 제작함으로써 구술을 음성만이 아니라 표정, 제스처 등을 통해 감정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즉 구술자의 구술 내용 뿐만 아니라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서 구술성이 강화되고 인터뷰의 연행적 측면까지 기록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구술채록에서 구술자는 왜 인터뷰를 해야 하는지, 자신의 구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구술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술채록에서는 구술자의 소외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는 구술자가 구술의 활용과 최종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카메라 앞에서 구술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구술채록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술자 소외현상이 이 연구에서는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술영상 제작이 목표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때문에 그 자료가 전시물로 사용된다는 것 때문에 구술자를 섭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일단 섭외가 된 구술자들은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자신의 구술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터뷰에 임하였다. 이렇게 구술자의 구술 의지가 확실하다면 전시용 영상 촬영도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술자들에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알려주기 때문에 연구가 박물관과 전시 홍보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7. 구술자의 성비와 지역적 다양성 부족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로는 구술자의 성비와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안서에서는 남녀의 성비를 5대 5로 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선정된 구술자는 남성 5명 여성 2명이었다. 이러한 결과의 주 원인은 4개월이라는 짧은 연

구 기간으로 구술자를 선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구술하는 모습이 전시가 된다는 것 때문에 구술사 인터뷰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구술자 섭외가 너무 어려웠고, 남녀를 구분하여 구술자를 선별할 수 없었다.

제안서에서는 구술자들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구술자들은 전북(남원-조용섭), 충남(천안-방기홍) 이외는 모두 수도권에서 왔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UHD 영상 촬영을 위하여 전문 스튜디오를 구할 비용이 없기 때문이었다. 연구비의 문제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강의실을 임시 스튜디오로 사용하다 보니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구술자를 구하면 서울까지 오고 가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V. 제언

1. 연구 기간의 문제

본 연구는 2019년 8월 22일에 계약하여 2019년 12월 20일에 종료되는 4개월의 연구용역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구술채록과 구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두 개의 작업을 병행하는 연구로서 실제로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따라서 연구 기간이 너무 부족하여 구술자 선정 기간 부족하였고, 구술자 선별 과정을 가질 수 없었다. 또한 연구수행기관인 한국구술사연구소 명의로 공식적인 구술자 지원 공고를 해 보았으나 별 소용이 없었고 면담자들의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구술자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구술자를 섭외하여 인터뷰가 진행되었어도 녹취를 위한 구술 영상을 받고, 녹취를 하고 면담자가 검독하여 구술자에게 검독을 요청하는데도 최소한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게다가 구술자들이 검독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고, 면담자들이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없었다.

2. 구술채록 시 섭외 문제

본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구술자 섭외였다. IMF 사태 경험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 특히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여파로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선뜻 카메라 앞에 나서 촬영에 응해주지 않으려고 했다. 예비 구술자 명단에 있었으나 최종 섭외에 실패한 사례는 매우 많다. IMF 당시 배우자의

사업체가 어려워져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했던 ○○지부 ○○노동협회 간부, IMF 당시 사업 부도 경험한 건축업자 2명, IMF 당시 미국 유학 중 귀국한 학생, 피아노 강사, 한국통신 명예퇴직자, 사업 부도 후 이혼한 가정의 자녀, 기타 등등 필자 주변에 IMF 시대의 위기를 몸소 겪어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인터뷰 거절의 이유로 가족의 반대, 자신의 삶이 도구화·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내 이야기가 ‘박물관에 영원히 박제되는 것(표현 그대로를 적음)’에 대한 두려움, 당시 너무 처절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단순히 촬영 스튜디오까지 가기가 귀찮고 일이 매우 바빠서 등이 있었다.

특히 짧은 연구 기간 내에 연구자가 개인적 인맥에만 의존하여 구술자를 찾다 보니 양질의 섭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처럼 연구자의 개인적 인맥에 의지하여 구술자를 찾는 과정은 향후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박물관에서 하는 구술채록은 개인의 연구 활동과는 다른 공공성을 담보해야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술자를 공개 모집하는 방안 즉 포스터, 방송자막, 박물관 SNS 등을 활용하여 양적으로 구술자 풀을 구축한 후 적합한 구술자를 선별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영상기록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선별된 구술자 위주로, 특히 전시하고자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적 영상기록을 해야할 것이다.

3. 연구비의 문제

1) 인건비 부족

본 연구는 구술채록을 하면서 동시에 구술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연구보조원이 필요하였다. 특히 구술 영상 촬영 시 메이크업아티스트와 같이 분장을 해주는 보조원 필요했고, 총괄 감독을 도와서 촬영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보조해주는 연구보조원이 필요하였으나 인력 부족으로 분장이 충분하지 못했고, 총괄 감독이 촬영장의 보조 업무까지 수행해야 했다.

또한 기존의 구술채록과 달리 영상 촬영에 구술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구술시간에 따른 면담자 인건비 지급은 문제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구술 시간에 따르는 구술자 사례비도 실제 구술시간보다 영상 촬영을 위한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구술시간에 따른 사례비 지급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고품질의 UHD 영상 보존을 위하여 3개의 저장장치가 필요하였고, 그 데이터를 관리할 데이터매니저가 필요하여 추가적으로 데이터매니저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2) 촬영 공간 대여비 필요

전문 스튜디오가 아닌 박물관 내부에 촬영 장비를 세팅한 간이스튜디오가 갖는 한계도 명확했다. 방음장치가 미비하여 행사가 많이 열리는 광화문 지역의 특성상 인터뷰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여 중간에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대규모 집회 시에는 촬영 장비를 실은 차량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상황에 맞닥뜨려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 적도 있다. 추후 구술 영상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이러한 기술적·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영상 촬영 장비 및 저장 장치 비용 부족

고품질의 UHD 영상 촬영을 위해 2대 카메라 사용하였지만 그에 대한 비용이 충분치 않았고, UHD 영상 보존을 위하여 3개의 저장장치가 필요하였는데 주어진 연구비로는 충당될 수 없었다.

4. 전시용 구술영상 제작을 위한 구술사 인터뷰의 문제

1) 구술채록 환경 개선

이번 구술영상 제작을 위한 구술사 인터뷰의 문제점 중 하나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인터뷰를 25분마다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카메라의 발열, 배터리 및 메모리 교체 등을 이유로 구술자가 구술에 몰입하여 한참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중단해야 해서 몰입도가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기존의 구술사 인터뷰에서 중요시하는 인터뷰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2) 카메라 앞에서의 구술과 카메라 밖에서의 구술의 차이

기존의 구술채록은 음성 녹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도 보다 더 자유롭게 구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술 영상 제작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술채록 보다는 얼마나 질 높은 구술 영상이 제작되는가가 더 중요시 되었다. 따라서 구술자들은 카메라를 의식하는 구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카메라가 쉬는 동안 면담자와는 자유로운 구술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총괄 감독에 의하면 방송 다큐멘터리 촬영에서는 카메라 밖에서는 구술자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술사 인터뷰에서는 카메라가 우선이 아니라 음성이 우

선이 되어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녹음기가 계속 돌아가며, 심지어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대화도 녹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술사 인터뷰의 특징이 본 연구에서는 구술 영상 제작을 위하여 실행될 수 없었다.

3) 구술시간의 정의 문제

본 연구의 1. 전체 진행 보고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이번 연구는 기존의 구술채록에서의 구술시간과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 구술시간에 대한 정의에 혼선이 있었다. 기존의 구술채록은 녹음된 음성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본 연구는 구술 영상 촬영 시간을 기준으로 구술시간이 책정되었다. 그런데 기존 구술채록은 동영상을 촬영하여도 인터뷰 시간과 동시에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인터뷰 시간=구술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촬영이 들어가기 전 준비 시간, 촬영 시간, 중간 휴식 시간, 정리 시간을 더 하면 인터뷰 시간은 구술 영상 시간보다 2-3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따라서 카메라 앞에서의 구술시간만을 구술시간으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우 구술시간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술시간에 따라서 면담자 인건비, 녹취자 녹취비, 구술자 사례비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5. 구술 영상 제작 프로세스 제안

본 연구를 수행 한 결과 수준 높은 구술 영상을 제작하고 구술 생애사가 동시에 중요한 자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제작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1) 구술자 풀의 구성

본 연구와 같이 면담자들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술자를 구하는 것은 면담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다. 라디오와 TV, SNS 등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통해 구술자 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체에서 기관을 통해 구술자 모집 공고를 하여 자발적인 구술자 풀이 구성되면 보다 전략적인 구술 영상 수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술 영상 제작 매뉴얼 필요

기관의 담당자가 바뀌거나 참여자가 바뀌어도 구술 영상 제작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10년 뒤에도 오늘과 똑같은 고민

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촬영팀이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의대로 기증품과 사진에 대한 영상 촬영과 스틸 촬영을 진행하였으나 향후 영상 촬영 시에는 제작과정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증물은 어떻게 촬영하고, 문건과 물건은 어떻게 촬영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으로 균질한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 구술사 연구자와 영상제작진이 함께 구술 영상 제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제작과정을 마련해 둔다면 균질한 결과물은 물론 이를 토대로 발전되는 과학기술과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버전2.0, 버전 3.0으로 진화하면서 구술영상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3) 구술채록과 구술영상 제작의 분리 추진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IMF를 중심으로 하는 생애사 인터뷰라도 IMF 경험 이외의 구술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3시간의 구술 생애사 인터뷰라도 실제로 전시용, 아카이브용 구술 영상은 최대한 30분 정도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인터뷰 전체를 촬영하는 방법 외에 audio recording을 먼저하고 전시용 부분만을 선정하여 따로 video recording을 하는 방법도 고려 필요가 있다. 즉 전문 구술사 연구자가 1차 연구를 추진하고 영상제작 전문가가 2차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구술 생애사는 특정 주제에 대한 경험을 이끌어내는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문 구술사 연구자의 1차 조사로 완성된 구술채록은 다양한 주제와 키워드로 분류, 목록화 되고, 구술 현장에 영상제작 구성원이 참여하여 관찰자로서 구술자를 파악하고 영상 촬영을 진행한다면 구술사 연구자가 영상 촬영에 참여했을 때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일한 이야기를 동일한 대상자에게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긴장감과 생동감의 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구술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말할 수 있으며, 영상제작진은 1차 구술참여로 인해 생산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주제에 적합한 구술영상을 편집/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4) 구술영상 제작을 위한 전문 스튜디오 설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계속적으로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전문 스튜디오를 대여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박물관 내에 전문 스튜디오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해외의 대표적인 구술채록기관들은 구술사 인터뷰 용 전문 스튜디오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고품질의 전시 영상을 제작하

기 위해서는 박물관 내 구술사 인터뷰 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도 가능한 전문 스튜디오 설치가 필요하다.

<부록 1> 구술대상자 관리카드(2019.12.12)

<부록 2> 최종산출물 목록

<부록 3> 구술자 제공 참고자료 목록

<부록 4> 구술채록 및 구술영상 제작 프로세스

<부록 5> 주간보고

<부록 1> 구술대상자관리카드

연번	예비 구술자명	생년 (나이)	연락처	현직위	당시 대표직위	섭외사유	섭외진행상황	
							날짜 2019년	방법 및 내용
1	복기성	1978 (42세) 남	010-9927-5718	쌍용자동차 직원	쌍용자동차 사내하청 직원	- IMF 당시 재직 중 이던 회사가 부도 남. 이후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해고됨 - 최근까지 투쟁의 시기를 보냄	9. 16	(사전면담) 면담자가 사업설명
							9. 19	예상 질문지 전달
							9. 22	촬영 진행
2	홍순영	1979년 (41세) 여	경기도 의정부시 010-3513-3565	**요양원 근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IMF 당시 부모님 사업의 여파로 대학진학이 어려워지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고생함 - 구술채록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9. 7	면담자의 가족이 구술자에게 권유
							9. 23	(전화) 면담자가 직접 사업설명
							9. 25	(전화) 면담자가 추가 설명, 촬영날짜 조율
							9. 29	촬영 진행
3	조용섭	1956년 (64세) 남	전북 남원시 010-3594-7173	지리산 두류실 대표	롯데캐피탈 부산지점장	- IMF 당시 부산은행, 롯데캐피탈 등 금융권에서 근무하다 실직 - 이후 귀촌 - 구술채록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9.9	- 전북 귀농귀촌 우수사례 홈페이지에서 구술자에 대한 정보접함 - (전화) 면담자가 사업설명
							9. 20	(전화) 면담자가 추가설명 및 촬영 시기 조율
							10. 7	구술자와 사전 면담
							10. 21	촬영 진행

7	방기홍	1963년 (57세) 남	010-5216-2539	문구류 도매업 대연상사 대표	문구류 도매업 대연상사 대표	IMF 당시 갑작스런 타격은 없었지만 IMF 이후 급변한 환경으로 인해 IMF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음	11.6	김종권 자문위원을 통해 섭외
							11.22	촬영일자 확인 및 예비 질문 공유
							11.25	촬영진행

<부록 2> 최종산출물 목록

1. 매체유형별 통계

구분	총 구술자 수	총 구술시간	동영상 데이터					문서철	외장하드
				동영상	음성	사진	녹취록		
총계	7	26시간 15분	19.52 TB	320		28	21	21	19

2. 구술자별 통계

*DATA 손실 방지를 위해 2COPY로 저장

연번	구술자명	총 구술시간	동영상 데이터					문서철	외장하드	외장하드		
				동영상	음성	사진	녹취록			사양	원본	COPY
1	복기성	3시간	2.01 TB	38		4	3	3	3	SSD 2TB	2	1
2	홍순영	3시간 10분	1.46 TB	38		4	3	3	2	SSD 3TB	1	1
3	조용섭	3시간 20분	2.74 TB	41		4	3	3	3	SSD 4TB	2	1
4	박임자	6시간 40분	5.27 TB	75		4	3	3	3	HDD 4TB	2	1
5	오준섭	3시간	2.34 TB	43		4	3	3	3	SSD 2TB	2	1
6	이철상	3시간 50분	2.94 TB	44		4	3	3	3	SSD 3TB	2	1
7	방기홍	3시간 15분	2.76 TB	41		4	3	3	2	HDD 4TB	1	1

<부록3> 참고자료 목록

연번	구술자	제공날짜	참고자료 유형									비고
			문서		사진		동영상		음성		물품	
			비전자	전자	비전자	전자	비전자	전자	비전자	전자		
1	복기성			1								(직접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함) 복기성은 본인의 상세 약력을 직접 작성. 쌍용자동차 복직투쟁 과정에서 제작된 동영상과 기사 등 링크를 9개 알려줌. 그리고 예비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서로 답안을 작성해 주었다. 이 자료들은 하나의 문서로 있는 그대로 넣어서 저장하였다. (면담자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2	복기성		1									복기성, "해고=죽음의 행렬을 막아라", [리얼리스트100] 4호, 삶이보이는창, 2012.
3	복기성		1									정혜윤, [그의 슬픔과 기쁨], 후마니타스, 2014.
4	복기성							1				기증한 자료 : [당신과 나의 전쟁: 당신의 체념 속에 스며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야기] (연출 태준식, 구성/대본 안지은, 조연출 손경화, 2010년) 다큐멘터리 DVD
5	오준섭										1	제안활동 최우수상(1995년 1월 3일)
6	오준섭										1	품질명장 동패(대통령패, 1996년 11월 4일)
7	오준섭										1	10년 장기근속 패(1997년 1월 3일)
8	오준섭					1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철원 직탄유원지
9	오준섭					1						1990년 분임발표회 사진 2점
10	오준섭					1						1992년 부서원 야유회(앞에 두 딸과 뒤편에 지원하던 소년가장 형제들)
11	오준섭					1						부서활동 사진
12	오준섭					1						가족사진과 취미활동 사진 2점
13	오준섭					1						1996년 품질경영대회 품질명장패 수여 사진 2점

<부록 4> 구술채록과 구술영상 제작 프로세스

1. 인터뷰 준비 단계	2. 인터뷰 단계	3. 인터뷰 정리
1) 면담자 구술자 섭외 예비질문지 준비 2) 면담자 예비조사 ①구술자 인적 사항 파악 <구술자 신상카드> 작성 요청 ②인터뷰 진행 과정 사전 설명+복장, 분장 설명 ③IMF를 기억나게 하는 물건 요청 ④예비질문지와 각종 동의서를 주고 사전에 읽고 서명해 주길 요청 ⑤인터뷰 일정 잡기	1) 면담자는 인터뷰 20분 전에 촬영 스튜디오에서 구술자를 만나서 <구술동의서>작성 2) 분장 3) 인터뷰 실시 4) 인터뷰 후에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초상권 이용동의서><인터뷰 사례비 의뢰서> 서명 받기 5) 보조연구원은 구술대상자 관리카드 작성	1) 영상촬영팀이 비디오 파일에서 오디오를 추출하여 면담자와 녹취자에게 보냄 (구글드라이브 사용) 2) 면담자는 <면담자 신상카드><면담일지><면담후기> <구술자 제공 참고자료 목록> 작성 3) 면담자는 구술 시간을 계산하여 <인터뷰 사례비 의뢰서>에 사례비 금액을 적어서 연구책임자에게 보냄→연구책임자는 사례비 지급 *인터뷰 사례비: 1시간 당 12만원(세전), 10분 당 2만원 수도권 밖에서 오시는 분은 KTX 기준으로 여비 추가 지급 3) 면담자는 녹취록이 오면 오디오 파일로 검독 상세목록과 타임 작성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작성 4) 면담자는 검독 후 구술자에게 <구술자 검독 안내문> <녹취록 수정 관련 안내>와 함께 녹취록을 보내서 검독하게 함.
4. 구술 영상 제작 단계	5. 최종 정리 단계	
1) 면담자는 구술자에게 비공개 부분을 확인하여 <비공개 내역서>에 따라 녹취록 수정본 작성 2) 비공개 부분 확인 후<구술자료 이용 동의서> 받음	1) 면담자는 각종 동의서와 <비공개 내역서> 수합하고 녹취록을 완성하여 제출 2) 영상촬영팀은 제출할 구술 영상들을 외장하드에 저장	

3) 면담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구술자 당 6개의 공통 주제에 대한 전시용 1-2분구술(시간표시)과 5-10분 구술 아카이브용 구술(시간표시)를 선택하여 영상촬영팀에 전달 4) 영상촬영팀에서는 구술자 당 구술자 당 촬영 원본 파일, 보존용 변환 파일, 6개의 1-2분 전시 서비스용 영상과 5-10분 구술 아카이브용 구술 영상 제작	2) 보조연구원은 최종 산출물 목록 작성 4)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작성	
--	---	--

<부록 5> 주간보고

주간진행보고		작성일자	2019년 9월 9일		
		작성팀	구술채록팀 영상촬영팀	작성자	전은기 고혜미
				검수자	윤택림
연구과제명	2019년 전시맞춤형 구술 영상 제작 연구				

구분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추진계획
구술채록팀	1. 제 1차 자문회의 실시 2019년 9월 3일(화) 오후2시-4시 이마빌딩 전시운영과 소회의실 2. 영상촬영 시연 일정 결정 2019년 9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3. 연구지원과와 조율회의 결정 2019년 9월 19일(목) 오후 2시 4. 구술자 대상 분담 논의	1. 구술자 대상 분담 결정 2. 구술자 섭외
영상촬영팀	1. 촬영스텝 회의 2019년 9월 6일(금) 4시 여의도 2. 구술영상 레퍼런스 리뷰	1. 촬영장비 렌트 상황 확인 -카메라 기종 -렌즈 2019년 9월9일(월) 여의도 2. 촬영 배경지 선택 및 구매 3. 외장하드 선택 및 구매

주간진행보고		작성일자	2019년 9월 16일		
		작성팀	구술채록팀 영상촬영팀	작성자	전은기 고혜미
				검수자	윤택림
연구과제명	2019년 전시맞춤형 구술 영상 제작 연구				

구분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추진계획
구술채록팀	1. 구술자 대상 분담 결정 2. 구술자 섭외 3. 세부 질문지 작성	1. 연구지원과와 조율회의 2019년 9월 19일(목) 오후 2시 2. 구술자 섭외 3. 구술인터뷰 촬영리허설
영상촬영팀	1. 촬영장비 렌트 상황 확인 2019년 9월 9일(월) 4시 여의도 2. 촬영용 외장하드 선택 2019년 9월 11일(수) 2시 여의도	1. 촬영배경 거치대 및 암막 구입 2019년 9월 16일 카메라장비 전문 매장 2. 촬영 조건 확인 배경, 조명, 카메라 상황 2019년 9월 16일 카메라 전문 렌탈 숍 3. 외장하드 구매 및 저장 상황 체크 2019년 9월 16일 인터넷 4. 9월 19일(목) 촬영 test -박물관 1시 도착, 장비세팅 5. 9월 19일(목) test촬영 후 촬영 원본 저장 및 프록시 변환

주간진행보고		작성일자	2019년 9월 23일		
		작성팀	구술채록팀 영상촬영팀	작성자	전은기 고혜미
				검수자	윤택림
연구과제명	2019년 전시맞춤형 구술 영상 제작 연구				

구분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추진계획
구술채록팀	1. 연구지원과와 조율회의 진행 2019년 9월 19일(목) 오후 2시 2. 구술인터뷰 촬영리허설 2019년 9월 19일(목) 오후 4시 3. 구술자 섭외 - 자녀세대 구술자 섭외 ■ 생애약사 부모님 빚내서 식당 크게 열고 갑자기 IMF 닥쳐서 순식간에 망하고 본인 대학진학 어려워지고, 최근에서야 겨우 회복. 아버지는 구둑방, 어머니는 요양원 근무. 본인은 아이엄마로서 현재 살고 있음 4. 구술인터뷰 진행 2019년 9월 22일 (일) 오전 10시~오후 2시 - 인터뷰 시간은 기본 3시간 걸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해야할 것. 카메라 테스트나 확장 등의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이 생김. 또 메모리 교체 등의 기술적인 요건에 의해 중간 쉬는 시간이 길어져 전체 소요시간이 길어짐. - 구술동의서, 구술자신상카드, 자료 기증 목록 등 서류가 매우 많은데 인터뷰가 모두 작성할 시간 여유가 부족함 -연구팀과 박물관 모두 인력을 지원해서 질문자가 인터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함	1. 구술자 섭외 - 구술자 인터뷰 사례비에 적용될 인터뷰 시간 책정 기준 수립 필요함. - 각 단체나 조직에 박물관 측에서 공문 발송등 통해 구술자 섭외에 협조해야함. 2. 구술 촬영 9월 29일(일) 오후 2시 41세 IMF당시 고3, 자녀세대 여성구술자 인터뷰 3. 진행된 인터뷰 구술채록 - 이번 구술인터뷰는 따로 질문자가 녹취를 하지 않고 영상파일에서 오디오파일 추출한 것을 영상촬영팀에게 제공받아 녹취채록 시작.

구분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추진계획
영상촬영팀	1.촬영배경 거치대 및 암막 구입 2019년 9월 16일 카메라장비 전문매장 -판매되는 배경지가 본 인터뷰 촬영에 적절하지 않아 동대문종합시장에서 배경천 구입 및 재봉 -카메라는 sony, panasonic, canon의 씨네 카메라 라인을 각각 현장 테스트 해 본 결과 색감과 더 많은 DATA정보로 기록(4K: 4096×2160), 기타 4K는 3840×2160)하여 구술 인터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canon기종으로 선택함. 2. 현장 카메라 CF카드 메모리 저장용 외장하드 구매 및 저장 상황 체크 2019년 9월 16일 인터넷구매 (WD MYPASSPORT 4TB 2.5" USB 3.0) 4. 9월 19일(목) 촬영 test -박물관 1시 도착, 장비세팅 -구술자 의상 ; 체크무늬+짙은 색 겹옷 피할 것 (검은색, 짙은 청색 계열) -얼굴의 번들거림을 위해 메이크업 필요과 파마머리의 경우 헤어제품 필요 5. test촬영으로 메모리 필요량 측정 -RT 20분 110GB 필요(CA 1대) 카메라 2대 이므로 2배량 필요 6. 첫 번째 구술자 촬영 - 남자/파마머리/짙은 색 상의로 조명 역광 조절필요했고 헤어제품과 번들거림을 피할 수 있는 메이크업 필요했음 7. 조명으로 인해 2-30분이 지나면 땀 등으로 다시 번들거림이 시작됨 따라서 카메라 CF 교체 때 메이크업을 처리하고 감.	1.촬영-두번째 구술자 2019년 9월 29일(일) 오후 2시 카메라 촬영팀은 12시 2. 촬영환경 및 조건 확인 - 카메라 추가 장비 - 오디오 추가 장비 - 분장 관련

구분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추진계획
영상촬영팀	8. 카메라 CF 카드 교체와 발열 때문에 30분여마다 촬영중단. 필요시간은 CF 교체에는 1분, 발열을 위해서는 매 1시간마다 10분 정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면담자들과의 사전 약속 필요함. 9. 촬영 세팅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1시간-2시간이 소요됨. 많은 정성과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내에 촬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1일 2~3인의 촬영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부득이 촬영 일정이 초과될 경우 예산 상 카메라 1대로 촬영해야 할 수도 있음. 사업종료기한 내에 편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후반작업의 편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10월내에 촬영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주간진행보고		작성일자	2019년 9월 23일		
		작성팀	구술채록팀 영상촬영팀	작성자	전은기 고혜미
				검수자	윤택림
연구과제명	2019년 전시맞춤형 구술 영상 제작 연구				

구분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추진계획
구술채록팀	1. 구술자 섭외 - 구술자 인터뷰 사례비에 적용될 인터뷰 시간 책정기준 수립: 구술 1시간 당 12만원, 10분단 2만원으로 결정 - 한국구술사연구소 명의의 [구술자 모집 공고]를 마련하여 sns와 연구소 이메일로 공지 - 각 단체나 조직에 박물관 측에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구술자 섭외에 협조 필요. - 산업노동자, 자녀세대, 부모세대, 벤처사업가, 자영업자, 귀농자 구술자 섭외 완료. 2. 인터뷰와 구술영상 제작 프로세스 조율. 9월 26일 (목) - 총 구술시간 계산에 대해 논의. 영상 편집물과 구술조사를 분리하여(녹화와 녹음을 분리하여) 인터뷰 연습과 중간 쉬는 시간 (영상촬영 특성상 강제적으로 쉬어야만 하는 시간) 때 이뤄지는 이야기들도 구술조사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옴. - 영상물과 일치된 녹취문을 기본으로 하고, 영상에 담기지 않았지만 추가되어야만 하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되는 분량의 음성파일과 녹취문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박물관 측과 조율. - 10월 3일 촬영 때 구술영상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추가 논의하기로 함. 3. 구술 촬영, 9월 29일(일) 오후 2시~7시, - IMF당시 고3, 자녀세대 여성구술자 촬영. - 10월 3일 구술예정자 촬영현장 사전 답사. 9월 29일(일) 오후 5시	1. 10월 3일(목) 촬영 예정 - 오전 10시 고물상 자영업 구술자(59세, 남) - 오후 3시 남양주 부모세대 구술자(71세, 여) 2. 10월 3일(목) 구술채록팀 회의 - 구술영상 제작 프로세스 점검 및 확인 3. 구술자 섭외 - IMF 당시 여성은행원, 치킨집 사장 등 직업, 연령, 성별을 고려한 구술자 섭외 추진. 4. 구술자 검독 시작

주간진행보고		작성일자	2019년 10월 7일		
		작성팀	구술채록팀 영상촬영팀	작성자	전은기 고혜미
				검수자	윤택림
연구과제명	2019년 전시맞춤형 구술 영상 제작 연구				

구분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추진계획
구술채록팀	1. 10월 3일 영상촬영 일정 연기 - 10월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예정. 대규모 인원 운집 시 박물관으로의 차량 출입 문제 및 소음 발생 우려. 10월 3일 다른 장소 섭외를 고려하였으나 구술자의 접근성 문제 및 태풍 복상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영상 촬영 취소함. 10월 3일 예정 되어 있던 영상 촬영(안산 고물상 자영업 구술자와 남양주 부모세대 구술자)은 구술자와 상의를 통해 추후 면담 및 촬영 일정 조율하기로 함. 2. 구술자 섭외 및 영상촬영 일정 조율 - 벤처기업 구술자 섭외 완료. 10월 20일 오후 2시 영상촬영하기로 함. - 남원 귀농 구술자와 남양주 부모세대 구술자 촬영 일정 조율(10월 21일 촬영 예정) - 안산 자영업 구술자 촬영일정 확정 10월 13일 오전 10시. 3. 영상촬영 녹취 진행 - 제조업 노동 구술자 녹취 진행 중. - 의정부 자녀세대 구술자 녹취 완료. 10월 7일 구술자 검독 진행 예정. - 구술자 검독을 마쳐야만 구술영상제작이 가능하기에 구술자 검독은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리기로 함.	1. 10월 13일(일) 촬영 예정 - 오전 10시 고물상 자영업 구술자(59세, 남) - 오후 3시에 귀농 구술자나 부모세대 구술자도 촬영 가능한지 10월 7일(월)에 일정 조율하기로 함. 2. 구술자 섭외 - 빅이슈코리아, 충청은행동우회 등을 통해 IMF 당시 여성은행원, 치킨집 사장 등 직업, 연령, 성별을 고려한 구술자 섭외를 하고 있으나 구술자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한 치킨집, 은행권 구술자를 수배중이나 섭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주제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음.
영상촬영팀	1. 10월 3일(목) 촬영 연기로 촬영장비 및 촬영스텝 일정 변경 2. 10월 1일 의정부 구술자 녹취 파일 전달 -이번 구술자부터 영상까지 추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검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 10월 13일(일) 촬영 예정 -13일 이전 구술자별 외장하드 확보

주간진행보고		작성일자	2019년 10월 14일		
		작성팀	구술채록팀 영상촬영팀	작성자	전은기 고혜미
				검수자	윤택림
연구과제명	2019년 전시맞춤형 구술 영상 제작 연구				

구분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추진계획
구술채록팀	1. 영상촬영 녹취 진행 - 제조업 노동 구술자 1차 녹취문 검토 완료. 구술자 본인확인 절차 진행 중. 2. 구술자 섭외 및 영상촬영 일정 조율 - 빅이슈코리아 대외협력국과 충청은행동우회에서 구술자 추천해 주기로 함. - 부모세대 구술자 촬영날짜 10월 14일 오전 10시로 변경 - 10월 21일 오후 2시에 남원 귀촌 구술자와 영상촬영하기로 약속. 3. 영상 촬영 - 10월 13일 토 오전10시 안산 고물상 자영업 구술자 영상촬영. (10월 14일 촬영예정 부모세대 구술자 참관) - 10월 14일(월) 오전 10시 남양주 부모세대 구술자	1. 촬영 예정 - 10월 20일 (일) 오후 2시 벤처 기업 구술자 2. 구술자 섭외 - 빅이슈코리아, 충청은행동우회에서 추천해 연결해주는 구술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시간동안 인터뷰할 것인지 등에 대해 토론했을 예정.
영상촬영팀	1. 제조업 노동 구술자 촬영(1차) 오디오 일부 누락 - 첫 번째 촬영은 면담자가 녹음한 파일을 토대로 녹취문 작성이 이루어졌음. 이후 촬영팀의 촬영본 소스에서 오디오파일을 발췌하여 녹취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진행하였음. 이는 차후 편집을 위한 전시 영상 발췌를 위한 타임코드 일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 촬영 후 1~2일 내로 오후에 오디오 파일을 전달하기 위해 변환과 오디오레벨 조정 등을 위한 밤샘작업을 진행하여 오디오 파일을 추출 전달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4번째 파일 29분 여 분량이 누락됨. 해당 부분은 면담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전달하여 편집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였음. 2. 13일 안산 고물상 자영업 구술자 촬영 - 기증품의 영상촬영이 필요한지 확인 필요. 관련지침이 없어 다큐멘터리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술자가 상패 등을 들고 설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음. * 참고로 상패 등의 클로즈업 영상이 필요할 경우 물레 등의 관련 도구 및 소품이 필요함. 차후 촬영 시에는 기증품이나 일기장 등 구술 관련 물품의 영상촬영 관련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영상촬영팀의 추가질문 - 본 프로젝트는 생애사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전시 맞춤형영상으로 생애사가 무엇보다 중요함. 하지만 마침 영상촬영팀의 풍부한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이 있어 면담자와의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추가 질문을 임의로 진행하고 있음. 전시 영상 인터뷰는 매우 짧은 시간에 관람자의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내야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추가영상의 개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연구자가 아닌 방송제작전문가와 시청자의 관점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진행과정에서 놓쳤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더 풍부하게 구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 활용 및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차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	--

주간진행보고		작성일자	2019년 11월 4일		
		작성팀	구술채록팀 영상촬영팀	작성자	전은기 고혜미
				검수자	윤택림
연구과제명	2019년 전시맞춤형 구술 영상 제작 연구				

구분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추진계획
구술채록팀	1. 중간보고회 진행 (10월 24일) 2.. 구술 녹취 및 검독 진행 - 오준섭 구술자 녹취 완료 - 이철상 구술자 녹취 진행 중 - 남양주 부모세대 2차 촬영분 녹취 및 검독 진행. 3. 구술자 섭외 - 빅이슈 코리아 구술자 취소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를 통해 PC방 업주 섭외 중 - 자문위원 김종권님을 통해 구술자 섭외 진행 중	1. 구술자 섭외 - 구로시민센터, 부천시민연합,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단체와 수원시, 화성시 시사 편찬위 연구진 등 인맥을 통해 구술자 섭외 예정 2. 구술 녹취 및 검독 진행 - 오준섭 구술자 검독 진행 예정
영상촬영팀	1. 촬영된 구술 4K 원본영상을 편집을 위한 FHD로 변환작업 진행 중. 변환하는데 1인당 2일 정도 소요되고 있고 한번 변환을 시작하면 다른 작업을 전혀 할 수 없어 종편실 시간이 빌 때 마다 변환 작업 진행 중임. 차후 편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주간진행보고		작성일자	2019년 11월 11일		
		작성팀	구술채록팀 영상촬영팀	작성자	전은기 고혜미
				검수자	윤택림
연구과제명	2019년 전시맞춤형 구술 영상 제작 연구				

구분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추진계획
구술채록팀	1. 구술자 섭외 (11월 6일) 김종권 자문위원이 섭외 해준 구술자와 사전면담 진행 2. 녹취록 작업 현재 촬영분까지 녹취 완료.	1. 김종권 자문위원이 추천한 구술자 와 촬영일자 조율
영상촬영팀	1. 촬영원본의 변환본 작업 중.	1. 17일까지는 기촬영한 구술자 6인 의 촬영본 전체의 변환을 완료할 계 획임.

주간진행보고		작성일자	2019년 11월 25일		
		작성팀	구술채록팀 영상촬영팀	작성자	전은기 고혜미
				검수자	윤택림
연구과제명	2019년 전시맞춤형 구술 영상 제작 연구				

구분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추진계획
구술채록팀	1. 구술자 섭외 및 촬영 - 방기홍 구술자와 촬영일정 조율 및 예비 질문 공유(11.21) - 11월 25일 오전 9시 30분~14시 방기홍님 촬영 완료 2. 녹취 및 검독 진행 - 오준섭 구술자 비공개 부분 확인 포함 모든 진행 완료. - 조용섭님 구술자 녹취 작업 완료. - 박임자님 촬영 분 녹취 작업 진행 중 - 이철상님 구술자 검독 진행 중	1. 조용섭님 구술자 검독 요청 예정 (11월 26일)
영상촬영팀	1. 내부 클라우드 업로드를 위해 기 구술자 6인의 원본 외장하드(ssd + hdd) 박물관 측에 전달 - (담당 : 하정옥) *클라우드 업로드 이후에는 촬영팀에 다시 전달하여 전시용 편집본이 완성 되면 저장 후 최종 납품하도록 처리 요망	1. 11월 30일까지 방기홍 구술자의 변환작업 완료 예정 2. 기 구술자들의 전시용 편집 대본이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편집 예정

주간진행보고		작성일자	2019년 12월 2일		
		작성팀	구술채록팀 영상촬영팀	작성자	전은기 고혜미
				검수자	윤택림
연구과제명	2019년 전시맞춤형 구술 영상 제작 연구				

구분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추진계획
구술채록팀	1. 홍순영 녹취와 검독 완료. 2. 조용섭 녹취 완료, 구술자 검독 진행 중 3. 박임자 1차, 2차 인터뷰 녹취 완료. 2차 검독 진행 예정 4. 방기홍 구술자 녹취문 작성 시작 5. 복기성, 오준섭, 구술조사 절차 모두 완료. 질문별 영상 선택 완료. 6. 이철승 구술자 검독 진행 중.	1. 녹취 및 검독 작업 마무리 2. 최종보고회 준비
영상촬영팀	1. 방기홍 구술자 변환완료. 구글드 라이브에 저용량 업로드 완료.	1. 전시영상 선택완료 취합 되는대로 가편집시작. 12일 최종보고회때 가편집 영상 시청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